



빛속의 염원 ... 지난 23일 강남 봉은사에서 김교각 지장왕보살 한국불안 한·중 합동법회가 열렸다. 이날 법회에서는 이사장 영배스님, 오영교 총장과 염소문 중국 종교사무국장 등이 참가해 불상 봉안과 함께 우리학교의 로스쿨 유치 및 북경올림픽 성공을 기원했다.

동문초청 Come Together 성료

500여명 참석해 약 20억 원 약정

‘Come Together with 108 Project’ 행사가 지난 2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신라호텔 다이내스티 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모교 발전을 위해 뜻을 모은 각계각층의 우리학교 동창들이 모인 자리로 약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사장 영배스님과 오영교 총장은 이날 108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기금과 총무로 영상센터 및 동문회관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에 동참할 것을 피력했다.

이재용(수교88졸) 아나운서가 진행한 1부 행사에서 ‘동국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제목의 동영상과 108프로젝트로 변모하는 동국의 모습을 담은 영상 자료가 상영돼 동문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2부 행사에는 만찬과 함께 우리학교 라틴댄스 동아리의 댄스 시범과 백상 응원단의 응원 등 재학생 공연이 이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산악인 박영석(제

교 91졸) 동문은 “후배들을 만나기 위해 학교를 자주 찾았는데 이렇게 여러 동문들과 함께 하니 기분이 새롭다”고 말했다. 또한 “동문들의 화합과 열정을 위해, 그리고 동국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행사를 자주 가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약 20억 원의 발전기금이 약정됐다. 주요 기부자는 △유성T&S 조성호 대표=10억 원 △이주산업 명예회장 문대식(사학49졸) 동문=5억 원 △(주)자연과사람 회장 구자선(불교대학원04졸) 동문=2억 원 △한외과대학 동문회장 김현수(대학원 한의학03졸) 동문=1억 원 등이다. <배> baessi03@dongguk.edu

우리학교, 미주대학과 협약 체결

대상은 텍사스대·캔자스대·미시건주립대·뉴욕주립대

다음 달 미주 대학과의 학술교류 협약이 잇따라 체결된다. 오영교 총장은 3일부터 6일까지 텍사스대 델러스 캠퍼스와 캔자스대학교를 방문해 협약을 체결한다. 텍사스대 델러스 캠퍼스에서는 학술교류 협정 및 경영대학간 복수학위 세부협약을 체결하고, 학문단위별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

의도 진행된다. 캔자스대에서는 지난 7월 체결했던 학술교류 협정에 이어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가진다. 또한 오총장의 귀국 후에도 글로벌기획팀 최경규(경영학)팀장이 다음달 7일까지 미시건주립대학교와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캠퍼스에서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협약 체결을 진행한다.

박물관, ‘석가팔상도’ 전

흥국사 팔상도 첫 공개

우리학교 박물관은 2007년 기획특별전으로 세존이 도를 이룬 그림 ‘석가팔상도’를 전시한다. 오는 12월 18일까지 박물관 2층 불교회화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부처님의 탄생에서 열반까지를 회화로 표현한 ‘팔상도’가 주요 테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세도가 정점에 달했던 1869년, 흥선대원군 부부와 그의 장남 이재면 부부가 금어 응석스님에게 부탁해 조성한 경기도 남양주 흥국사에 모신 ‘석가팔상도’가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음달 3일 기말 강의평가 실시

불응시 성적 조회 불가능 ... 내년부터 3회 실시

다음달 3일부터 4주간 2007학년도 2학기 기말 강의평가가 이뤄진다. 시행대상 교과목은 올해 2학기에 개설된 전체 교과목에 해당한다. 강의평가 설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은 성적 공시기간에 학교 홈페이지 및 전산망에서 이번 학기 수강과목 성적을 조회할 수 없다. 강의 평가를 할 경우 개인의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 강의평가는 지난 10월 중간 강의평가에 이어 이번 학기 두 번째 실시되는 강의평가다.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평가 횟수가 학기당 3회로 늘어날 예정이다.

제40대 총학생회선거 사실상 무산

중앙선거 무기한 연기 ... 단과대도 일부만 진행

제40대 총학생회선거가 후보자 격박탈과 후보사퇴로 무산되고 총대의원회 등 중앙선거도 무기한 연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정평주·야간 국제통상4, 이하 중선위)는 지난 20일 대자보를 통해 “후보자들의 부정한 선거방법과 여론선동 등으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거연기는 선거진행에 대해 후보 측과 더불어 일반재학생들의 반발에서 비롯됐다. 지난 19일 오후 학생회관에서 총학생회 기호2번 선거본부 중심으로 한 ‘동국대 40대 총학생회 선거 정상화화 바라는 학생모임’은 선거정상화 촉구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서 학생들은 중선위원장의 사과 및 사퇴, 선거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학생회관에서 동국관까지 3보1배를 진행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총학생회 기호1번 후보자는 팔정대 불상 앞에서 “기호2번 측의 부정한 선거운동과 여론몰이로 발생한 중선위원장과 유착 등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사퇴한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이렇게 선거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정평주 중선위원장은 선거연기와 관련한 대자보 발표 이후 잡적인 상황이다. 이에 문과대, 법과대, 사과대, 사법대, 예술대 중선위원들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파탄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또한 이날 자리에서 중선위원장의 사퇴와 함께 나머지 7개 단과대 중선위원들의 책임회피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7개 단과대 대의원들은 “지금 분위기가 가라앉기를 기다린다”는 반응으로 일관했다. 이 같이 선거자체가 무산되는 결과는 중선위와 후보자들이 선거시

행세척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서 시작했다. 기호2번의 후보자격박탈에 있어 중선위 재직위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진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더불어 선거시행세척에 선거운동 1/2지점 이후 후보자 사퇴는 불가능하다고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기호1번이 사퇴에 대해 묵인하고 있는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선거시행세척에 따라 선거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사유발생 후 15일 이내 실시해야 하지만 이 같은 중선위의 태도로 볼때 다시 선거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학내반응이다. 이대로 재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 2월에는 단과대학대표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대표자들이 가운데 호선을 통해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해 총학생회 역할을 대신한다. 이후, 내년 3월 총학생회 보궐선거를 갖는다. 한편, 단과대학총학생회 선거 역시 대의원들의 성향에 따라 두가지 형태로 나뉘었다. 문과대, 법과대, 사과대, 정산대, 사법대, 예술대의 경우 총학생회선거 거부와 함께 선거정상화를 위해 선거일정을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진행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그러나 불교대, 이과대, 경영대, 생자대, 공과대는 일정대로 진행했다. 단과대 선거결과가 아래표와 같다.

<표>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 결과

단과대	총투표인원	투표결과			당선자	
		찬성	반대	무효	정	부
불교대	136표(63.84%)	86표(63.24%)	46표(33.82%)	4표(2.94%)	구자현(인철3)	홍대용(인철4)
이과대	402표(54.69%)	312표(77.62%)	81표(20.14%)	9표(2.23%)	김철(통계3)	남해미(화학2)
생자대	354표(53%)	321표(90.7%)	30표(8.5%)	3표(0.8%)	라인호(생물3)	심선희(식자경3)
공과대	881표(51%)	748표(84.9%)	121표(13.7%)	5표(0.56%)	이형근(생화공3)	연성모(토목공3)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본교 취업률 73.1%

작년보다 2.2% 상승 ... 불교대 97.8% 최고

2007학년도 우리학교 취업률이 73.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0.9%보다 2.2% 상승된 수치이다. 우리학교는 B그룹(졸업자수 2천명 이상 3천명 미만)에서 속명여대, 중앙대, 홍익대 등과 함께 함께 70~80% 대의 취업률을 기록한 학교 군에 속했다. 올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작년과 달리 순위를 매기지 않은 점이 지난해와 다른점이다. 각 그룹을 취업률 80~90%, 70~80%, 60~70% 구간으로 나눠 ‘가나다’ 순으로 발표했다. 이는 대학 서열화에 따른 과잉 경쟁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다. 올해 우리학교 취업통계조사 대상자는 2,931명이며 △정규직 취업자=1,340명 △비정규직 취업자=293명 △대학원 진학자=272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남·여별 취업 및 진학률은 △취업률=남(77.7%), 여(67.2%) △진학률=남(8.1%), 여(10.8%)이며 취업률 가운데 정규직 비율은 남(59.4%), 여(39.7%)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취업률은 야간강좌를 제외하고 불교대가 97.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예술대, 경영대, 공과대 순으로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학과별로는 불교학전공(30), 선학전공(15), 불교미술전공(18), 한국화전공(14), 서양화전공(12), 조소전공(10)이 100%의 취업률을 보였다. (괄호는 졸업자 수) 작년 취업률에 비해 불교대가 17.8%, 이과대가 14.9% 상승하는 등 대부분의 단과대가 작년보다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법과대는 작년 64.5%에 비해 9.7% 낮아진 54.8%의 취업률을 보였다. 매년 높아지는 우리학교 취업률에 대해 취업지원센터 변민우 과장은 “2.2% 높아진 취업률은 70여명의 학생들이 더 취업한 것을 의미하고 이는 학교와 학생이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배> baessi03@dongguk.edu

동대학술상·동대문학상 7명 수상

장원 100만원·가작 50만원 장학금 수여



제45회 동대학술상과 제22회 동대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22일 총장실에서 열렸다. 동대 학술상 및 문학상 장원에게는 100만원(시 50만원), 가작에게는 50만원(시 3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학술상은 민지훈(국교3)의 ‘현행 철학 교육의 문제점과 방안의 모색’이 인문과학부 장원을 수상했다. 문학상은 시 부문에서 △장원=

류진(문창2)의 ‘주산지의 왕버들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 △가작=이세라(국문2)의 ‘노을’, 소설 부문에서 △장원=김동화(문창4)의 ‘지금은 아무도 거기에 앉지 않는다’ △가작=안성훈(문창4)의 ‘비계 위에서’가 당선됐다. 희곡 시나리오 부문에서는 △장원=구성미(국문3)의 ‘트럭’ △가작=오민아(문창3)의 ‘빨래’가 선정됐다. >관련지면 5면

숨은 동국 찾기



마음이 번지다

지난 추억이
눈물 한방울 떨어뜨렸더니,
금세 기억이 번졌다. 그리곤
처음의 기억들이
흘러지고 흘러져서
모두 눈물과 섞여버렸다.
것가를 스쳐가는 바람이
날로 쌀쌀해 지고 있네요.
학생들 마음은 언제나
봄이길 바라며..

육성우 객원기자
y7s4w7d@dongguk.edu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모집인원 00명
응시자격 1학년 재학생
원시접수 학기 중 모집
원시면담 SC제일은행 옆 본관 1층 동대신문사 사무실
http://www.dgupress.co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문의 www.dgupress.com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TEL: (02) 2260-3491~2 E-mail: dgupress@dongguk.edu
혜택 소정의 활동비, 장학금 지원
교내 국제교육원 주관 어학특강 방증 무료 수강,
인문 교육기관 무료 수강
* 보호자 월 의료보험료 5만원이하인 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 감면

목역글

총학생회의 지난 1년을 돌아본다

관련지면 3면 목역글
- 문화사업 ‘A’ ... 독립성·투명성은 ‘?’

법학전문대학원 준비 어떻게 되어나?

불교계지원 · ‘문화산업법’ 특성화

교육부가 제시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인가신청서 마감일이 이번 30일로 다가왔다. 우리 학교는 ‘문화산업법’을 특성화로 80명 정원 인가를 받기 위해 로스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준비사항을 알아본다.

▲시설 및 교원 = 우리학교는 현재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시설 기준을 완벽히 충족하고 있다. 시설인프라의 필수 항목인 로스쿨 전용건물(만해관)과 전용도서관, 모의법정의 준비가 12월 안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예정이다. 또한 로스쿨 전용기숙사로서 54명 수용규모의 독립된 기숙시설이 확보됐다.

부수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입학 대상자들을 위해 현재 리모델링 중인 모의법정 앞에 수유실과 탁아실 공사가 함께 진행되며 장애학생들의 접근시설로 법학도서관과 만해관 사이의 엘리베이터 설치 등 위한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

또한 우리학교는 교원확보 부문에서도 현재 30명의 교원을 확보해 전임교원 확보율이 130%로 로스쿨 선정 기준을 충족시켰다. 여성 교수는 현재 3명으로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했으며 향후 3년 안에 1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특성화 전략 및 국제화 실적 = 우리학교 로스쿨 운영의 핵심적인 특성화 전략으로 ‘문화산업법’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영상문화콘텐츠, 게임산업법, 지적재산권법 등 앞으로 법조인의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한 전략이다.

현재 콘텐츠 개발이 활발한 충무로의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불교 문화자산을 활용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발전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또한 로스쿨 국제화를 위해 3개국 4개 대학과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중국해양대학 및 중남재경정법대학과는 작년 11월과 올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또한 인도 네루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을 통해서 내년 2월 영상미디어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인디애나 로스쿨과는 세미나 및 인턴십이 이뤄지는 여름연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로스쿨 개원 후에는 재학생에게 LL.M. 과정의 입학혜택도 준비 중이다.

▲교육과정 = 교육과정의 주요 평가 항목은 로스쿨 외국어 강의 수와 교원의 외국어 강의 능력이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 학교의 경우 다른 과의 교수들을 뽑아 대로 발령하는 등 행정상의 편법이 자행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학교의 경우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한 법부법인의 변호사로 겸임교수로 초빙하는 등의 방안으로 20개국 어 강좌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그 밖에 로스쿨 유치 후, 잔류하는 학부생들을 위해 로스쿨 전임교수들이 학부생들의 강의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4명의 학부전임교수 배치 및 주임교수와 조교를 배치하는 등 학부생의 학습권 보호대책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우리학교는 타 학교와 달리 불교계의 안정적인 지원 아래 로스쿨 운영을 할 수 있는 점이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법과대 이상영(법학) 학장은 “우리학교가 로스쿨 유치에 성공해 불교계의 지도적 인재를 배출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는 동국대의 발전과 더불어 불교계의 흥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선거정상화를 위해” ...

지난 19일 선거정상화를 바라는 학생들이 3보1배 시위를 했다. 이후 이들은 촛불시위를 4일간 진행하며 중선위장 시위를 촉구했다.
정동훈 기자 gd1226@dongguk.edu

인전무대

이럴 때만, 반짝

○...어느 단과대 학생회장 투표소 앞은 쇼프로 방청객들이 모였다는데.

알아본 즉, 투표소 앞 학생들이 지나가는 지인들을 향해 “행-선배~”를 기쁘게 불러대 부담스런 일부 학생들은 가던 길을 돌아갈 정도라는데.

투표참여의 목소리는 좋지만, 자율적인 선거 분위기를 망치는 건 아닌지.

이에 본 회전문무대 앞 “선거 때만 말고, 평소에도 그렇게 아는 척 좀 해봐라”

미니총학홍피

○...개인 블로그보다 더 개성 넘치는 공간이었다던데
이유인 즉, 지난 20일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총학 개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의 개인적인 팝업창이 5개나 났다고.

물론 총학생회 홈페이지는 총학에서 만들어 운영하는 곳이지만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만든 공간 만큼 개인적인 사용을 자제해야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무대 앞 “총학생회 홈페이지는 싸**드 미**피가 아닙니다”

만해관 타향살이

○...만해관 수업 전에는 교수님보다 수위 아저씨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데.

알아본즉 로스쿨 관련 공사로 명진관 수업이 만해관으로 옮겨졌지만 정작 강의실 이용 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아 수업시간임에도 잠겨져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행정집행에 있어 철저한 준비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무대 앞 “만해관 앞에서 외치는 ‘열려라 참깨’”

과도한 방임주의

○...2학기, 전과신청 기간 동국인들의 마음이 새까만 재가 되었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전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관련 문의에도 해당 학과 학사운영실은 “모릅니다”로 일관했다고.

현 전공에 적응 못해 전과를 결정한 학생들은 과연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정보 못 찾아 찢찢매는 동국인들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

뿌리부터 잘못된 선거시행세칙

중선위 위반시 제재조항 없어 ... 자의적 선거세칙 개정 시급

20일부터 치러져야 했던 제40대 총학생회선거는 무산되고 다른 중앙선거도 무기한 연기됐다. 그 원인의 한 가운데에는 개정하는 과정부터 잘못된 선거시행세칙이 있다.

학생회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가 정하도록 돼있는 선거시행세칙은 그동안 전해 사용했던 선거시행세칙을 당해 연도에 맞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왔다. 보통 중선위는 굵직한 유세방법 및 운동방법 등만 확인하고 날짜와 숫자 정도만 수정하는 게 전부였다. 선거시행세칙의 적법성으로 가장 떠들썩했던 올해 중선위 경우, 중선위위원장 단독으로 세칙을 정한 뒤 중선위를 소집해 “작년 것과 비슷하다”며 확인하는 것에 그쳐 이러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처럼 허술하게 만들어진 선거

시행세칙은 중선위가 선거시행세칙을 어겼을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만한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 그로 인해 중선위와 후보자들은 ‘안지키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 왔다. 중선위는 이번 선거전행에 있어 경고조치에 해당하는 항목만 선거시행세칙을 따랐을 뿐 그 외의 중선위 소집, 경고내리는 절차, 후보자격 박탈에 관한 절차, 선거연기 등은 임의대로 진행했다. 또한 학생회칙에 따르면 유권해석은 중앙위원회에서 담당한다고 돼있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 대부분이 중선위장에 의해 해석됐다.

이 외에 조항자체도 많은 허점들이 발견된다. 표현이 모호하거나 중선위장에게 무한한 권위를 제공하는 조항이 즐비하다. 선거운동을 ‘당선을 얻거나 얻게 하는

행위, 중선위가 선거운동이라 판단하는 모든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는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는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조항이다. 또한 투표함 봉합에 있어 투표함 입구에 중선위장의 날인만 있으면 봉합이 가능하고 인정하고 있어 중선위장의 독단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돼있는 셈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몇 년째 계속 사용되고 있는 조항으로서 선거시행세칙이 얼마나 허술하게 구성됐는지 지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대로 허술한 선거시행세칙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번 선거과정은 또 한번 반복될 수 있다. 모든 구성원 앞에서 공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선거시행세칙의 개정부터 서둘러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나리 기자 vik126@dongguk.edu

독약포에서

되돌아온 화살

지난 19일, 팔정도 앞에서는 묘한 장면이 연출됐다. 학내 기차들을 부른 총학생회 후보 기차 1호 1번 측의 사퇴발표가 끝나는 순간, 기차 2번 측이 중심이 된 삼보일배 행렬이 곧바로 이어지는 진풍경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묘한 기운이 흐른 것은 선거기간동안 양측 후보를 둘러싼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준다.

지난 2주간 돌아온 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상대방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글들과 대자보로 시끄러웠다.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일부 학생들은 온라인상에서 각기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글로 편을 갈라 싸우듯, 매일매일 새롭게 터져 나오는 폭력적이거나 허술하게 구성된 글이 뜨거웠다. 이러한 싸움 속에서 선거는 1번 후보 측의 사퇴와 2번 후보 측의 후보자격 박탈로 무산됐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정평주·야간 국제통상4)는 모든 중앙 선거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로써 2008년도 선거는 방향을 잃고, 학생들의 뜨거웠던 선거공방 역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하다. 올해 안에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경우 40대 총학생회의 선거가 이뤄지기 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 또한 비대위장은 학생대표자들 중 한명이 맡게 된다.

지난 2005년 당시 선거 출마자가 나오지 않고, 이후 진행된 재선거에서도 단독후보자가 선거전 후보직을 사퇴하는 일이 있었다. 이로써 1년 남짓 총학생회 대신 비대위 체제로 운영됐다. 그 해, 각 단과대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예산분배의 공정성 문제와 등록금 인상방안에 대해 학생들의 통합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 때문에 전반적인 학생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그 역할을 다 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처럼 학생들의 직접선거로 당선된 공식적인 총학생회가 아닌, 비대위 체제의 운영은 자격의 당위성과 책임감 부족으로 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이대로 선거가 아무런 대책 없이 연기돼 버린다면, 제 40대 총학생회의 출범을 대신해 꾸려지게 될 비대위는 당장 1-2월

코넬대와 도서교류

우리학교와 미국 코넬대의 도서교류가 이뤄진다. 우리학교는 국문학, 한국역사 등 한국학과 인문학에 관련된 332권의 책을 보내며 코넬대로부터 전 분야의 학술서적 358권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멀티미디어실 김병훈 과장은 “이번 도서교류는 고급 학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러한 교류가 앞으로 인적교류의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번 교류의 기대를 나타냈다.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2007 가을 ‘동국사랑’ 사진공모전

동국 구성원의 애교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동국사랑’ 사진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공모분야 (주제)**
가. 동국인의 캠퍼스 라이프 : 공부, 세미나, 실업, 실습, 공연, 각종 행사 등
나. 새로워진 동국 : 리모델링 건물(삼육관, 학림관) 전경 등
- 응모자격** : 재학생, 동문, 교수, 직원 등 동국인인 누구나
(단, 출품작수는 1인당 10점 이내로 제한합니다.)
- 응모방법 및 제출방식**
가. 2007년 11월 30일(금)까지 2560x2048 픽셀(약 5백만화소) 이상으로 촬영된 jpg 이미지로 응모신청서와 함께 웹하드(webhard.co.kr)에 올려주세요.
(웹하드 ID : dgupr 비밀번호 : 3027 - 응모신청서는 홈페이지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나. 웹하드에 올리면 ‘동국사랑’ 사진공모전 폴더가 있습니다.
다. 웹하드에 올리실 때는 소속과 이름으로 폴더명을 만들어주세요. (예: 영문3 김동국)
라. 폴더명을 만들 때 꼭 비밀번호를 만들어주세요.
마. 필름(슬라이드)으로 촬영하였을 경우에는 스캔 후 제출하여야 하며, 시상자에 선정되었을 경우 원본 필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상 내역 및 당선자 발표**
가. 시상내역
▶ 금 상 - 1명 (30만원 상당의 상품 증정)
▶ 은 상 - 1명 (20만원 상당의 상품 증정)
▶ 동 상 - 2명 (10만원 상당의 상품 증정)
▶ 장려상 - 10명 (2만원 상당의 상품 증정)
나. 당선자 발표 : 2007년 12월 10일(월) 학교홈페이지(서울캠퍼스 공지사항)를 통해 발표
- 유의사항**
가. 응모된 사진은 학교 홍보사진으로 사용됩니다.
나. 최소 500만화소 이상의 카메라로 촬영된 jpg 이미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출품사진은 초상권과 저작권의 침해가 없는 사진이어야 하며, 합성사진은 제외됩니다.
라.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응모된 사진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심사기준 및 문의**
가. 심사기준 : 소재의 적합성 및 독창성 50%, 기술적 완성도 50%
나. 문의 : 본관4층 전략홍보실 (전화 : 2260-3025 담당자 : 김연주)

전략홍보실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업종·직종별 전문가 릴레이특강

저학년에 진로 및 취업방향을 제시하고 고학년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취업의 결정 기준을 제공하고자 2학기 ‘업종·직종별 전문가 릴레이특강’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대상 : 전학년
- 접수안내 : **본관 취업지원센터 선착순 접수**
(본관 2층 취업지원센터 조은희/교내 3054)
- 모집인원 및 장소 : **희당 선착순 100명 다관관(초하당) 세미나실**
- 강의 내용 : 업계 전망 및 동향 / 업종의 특징 및 인재상 / 근무환경 / 주요 업무내용 및 분위기 / 취업전략(기본요건, 개인역량, 자격요건 등) / 질의응답
- 프로그램 안내 및 행사일시 (오후 5시30분 ~ 8시00분)

회별	일시	세 부 내 용	강사명	소 속	비 고
8회	11/27	<직업탐구> 교사 “경쟁력을 키워라, 사립학교는 기다린다!”	서명석	배재중학교 교감	동문
9회	12/4	<직업탐구> 컨벤션 기획사 되고 싶다	김대환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 컨벤션본부 팀장	
10회	12/11	<직업탐구> 광고계의 별 카피라이터	윤재림	서울예술대학 광고창작과 교수	동문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영어Pass제 대체강좌 공고

개설취지 및 목적	1. 졸업인증 미 취득자에 대해 보충학습 기회 제공 2. 강좌는 졸업인증 Pass제의 취지에 합당하게 구성되며 출결 및 성적은 엄격히 관리됨.
강좌구성	강 좌 명 2007년 하반기 졸업 Pass제 대체강좌
	수업기간 2008년 1월 7일(월) ~ 2008년 1월 19일(토)
강의시간	강의시간 평 일 : 2시 ~ 6시 (4시간) 토요일 : 10시 ~ 3시 (4시간, 12~1시는 점심시간)
	강의내용 TOEIC LRC/칭취 강좌/ Reading Voca / 비즈니스 영어
	강 의 실 추후공고
수강자격 및 조건	1.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영어Pass제 미통과자 및 수료자 2. 영어공인인증시험(TOEIC, TOEFL, TEPS) 및 외국어 교육센터 Pass제 모의시험 시험 3회 이상 응시 경험 있는 자
Pass 기준	총점산출 출석률 60% + 성적 40%
	Pass 기준 1. 총점70점 이상일 경우 Pass 2. 2회 이상 결석 혹은 시험 미응시는 점수와 관계없이 제적 3. Pass의 경우 영어 졸업인증자격을 취득한것으로 처리
수강신청	접수일자 12월 17일(월) ~ 12월 28일(금)
	접수장소 해피관 1층 English Clinic
	준 비 물 신청서, 사진 2장, 신분증, 시험응시증명서류(성적표)
	신청방법 1. 수강신청서 작성, 과거 영어시험 증명자료와 같이 접수 후 2. 온라인 입금 : 신한은행 / 계좌번호 140-006-754830 / 예금주 : 동국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
수 강 료	200,000원 (교재 별도)
문의사항	2260-3468, 3470

국제화추진단 외국어교육센터

총학생회의 지난 1년을 돌아보다

문화사업 'A'... 독립성·투명성은 '?'

문화행사 높은 참여율...대의기구로서 여론수렴 의지 부족



지난 5월 '학제개편안 자유토론회' 모습



'동국인 남산걷기대회' 참가모습



목역가요제 '동국신기' 공연모습

39대 총학생회(회장=정형주·통계 4, 이하 총학)의 임기가 한 달 가량 남은 현 시점에서 1년 동안의 활동을 되짚어 보았다. 올해 총학은 다양한 문화행사들로 학생들의 문화적 욕구는 충족시켰지만, 진행과정에서 지나치게 학교예산에 의존한 점과, 학생자치기구의 사업이라고 하기에 걸맞지 않는 행사들이 학생회이름으로 진행된 것이 아쉽다는 것이 중평이다.

독립성·투명성 문제

먼저 학생자치기구로서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 현재 학생회비 납부율은 40%대로 떨어진 상태다. 1학기 총학예산은 700여 만 원이었다. 그러다보니 학생회비만으로는 다양한 학생회 사업을 진행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올해 총학 사업들은 학교에서 지원받은 예산으로 상당수 진행됐다. 동국 시네마데이, 목욕가요제, 세계의 대학을 가다 등의 사업은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즉, 학생자치기구 차원에서 진행할 만한 수준의 사업이 아니다.

현재 거둬지는 학생회비만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학생회비를 내야 학생회가 힘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그리고 총학이 학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생들이 학생회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학생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학교예산을 요청하고 이를 집행하는 데 머무른다면 학생자치기구로서 총학의 위상은 갈수록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두 번째로, 학생회 운영의 투명성 문

제가. 2007학년도 등록금 인상문제에 대해 학교 측과 총학 측이 최종 합의점을 도출한 결과 등록금 인상률 중 1.5%가 하향 조정됐다. 조정되는 1.5% 중 0.5%는 T-Money카드에 적립되는 방식으로 개인별 지급이 되고, 나머지 1%는 총학이 제안하는 교육환경 및 학생복지 개선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했다. 등록금 중 1%를 총학이 제안하는 사업에 쓰겠다고 한 이상 이 돈은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투자할 지에 대해서는 학생회차원이 아닌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했다. 또한 예산이 집행된 후에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학교에서 예산을 받아 집행한 사업에 대한 감사와 결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부사업 평가

총학이 시행한 세부적인 사업들을 살펴보자. '동국 시네마데이'는 매회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문화 사업이다. 지난 등록금협상 테이블에서 총학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동국 시네마데이를 위해 180석 규모의 상영관을 하루 6회 대관하는 데 드는 비용이 5백~6백만 원이다. 총학이 기획한 대로 이 행사를 1년 동안 6회 진행하면 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생들에게 무료영화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학교예산을 요청하고 이를 집행하는 데 머무른다면 학생자치기구로서 총학의 위상은 갈수록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한편 9월 10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된

'클린 동국 캠페인'의 경우 △캠퍼스 차 없는 날 실시 △클린 게시판 설치 및 운영 △불법광고 현수막 및 광고물 제거 △드서판 및 강의실 에티켓 지키기 △면학분위기 방해소음 유발방지 등의 내용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의식을 환기시키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특히 학내차량 관련 캠페인은 장기주차 차량을 30%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단순히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차량5부제 실시 등으로 제도화 시키려는 추후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또한 클린 동국 캠페인이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0월 초에는 총학생회가 주최한 동국인 남산 걷기 대회를 알리는 포스터가 바닥 및 게시판에 난무해 '일회성 캠페인에 지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었다.

학생회비 납부자 혜택 논란

총학이 진행하는 사업 중 '학생회비 납부한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었다. '동국 시네마데이' 신청자 중 우선 선정, '목욕가요제' 2차 예선에서 가산점 부여, '세계의 대학을 가다' 신청자 중 우선선발 등이 그 예다. 앞에서 말한 사업들의 경우 학교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총학은 전체 학생들을 위한 대의기구이니 만큼 학생회비 납부 여부로 혜택의 차별을 들인다는 근거가 없다.

하지만 이는 학생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총학 측의 교육의책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학생들 스스로 학생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생회비 납부를 통해 총학의 경제적 기반이 형성돼야 학생자치기구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의견 수렴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학제개편안 발표'에 대해 총학은 전체 학생대표자 회의를 열어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학교 측과의 지속적인 협상'과 '실문조사를 통한 여론수렴'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학제개편안에 대해 총장, 부총장, 학사지원본부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점은 학생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다운 모습이었다. 그러나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는 되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또, 신장아 사건과 만해관 열람실 폐쇄에 따른 학생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해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신장아 사건 때는 외부인사 인터뷰를 통해 학생회의 입장을 밝히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성명서 발표 이후, 한 번의 설문조사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별다른 활동이 없어 스스로 입장을 축소시킨 것이 아니냐는 평을 받았다.

다양한 문화사업 진행, 화려한 공연 유치 등은 학생들의 높은 참여율과 함께 학창시절 추억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또한 농활체험, DMZ봉사활동 등은 학생들과의 유대감 형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행사참여가 아닌 학생회 사업 자체에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은 아쉽다.

아직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남은 임기동안 학생자치기구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학생다운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스스로가 다가선다면 그동안의 활동들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최미혜 기자

lmissionaral@dongguk.edu

우리학교 눈높이 길라잡이

입시 눈높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신문사에서 임학처와 공동으로 본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눈높이 준비연수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바, 이번 2학기에는 눈높이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전략을 소개하기로 한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독서 ●토론 ●NIE ●연습 ●평가 ●나만의 생각 ●유의사항

7. 눈높이 준비 이렇게 한다

- 유의사항

편집자

논술, '이것' 만 명심하자

글 쓰는 순서

1. 독서
2. 토론
3. NIE
4. 연습
5. 평가
6. 나만의 생각
7. 유의사항

요즘 대입에서 논술 고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논술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유의해야 한다.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표현=논술에서 중요한 것은 간결하게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다. 문장이 길어지면 과감하게 끊어서 간결하게 나타내야 한다.

▲상황에 맞는 논리 전개 필요=글을 구성할 때는 항상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고 편견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가 요구하는 논제에 맞추어 자유롭게 구성하여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올바른 교정부호를 사용하여 교정=원고 교정에서는 글을 추가, 삭제, 정정은 물론 문단의 설정 등을 자유롭게 진행하고 변경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약속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진행하지 않으면, 필자의 뜻대로 바로 잡지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①틀린 부분
'V'표로 지움을 나타내고 그 위쪽 줄 사이에 고칠 내용을 적는다. 반드시 위쪽에 일률적으로 써야 혼선을 피할 수 있다.

②삭제하고 싶은 곳
틀린 곳이나 불필요한 부분에 한 줄(또는 두 줄)을 긋는다. 만일 지운 것을 되살리고 싶으면 그 줄 두어 군데에 'X'표시를 하거나 '생'이라 표시한다.

③삽입의 경우
간단한 문장은 '-'표시로 가능하지만 분량이 많으면, 별도의 원고용지를 사용한다. 이때는 삽입한 원고용지에 다른 원고와 분간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삽입할 위치에 이와 동일한 표시를 하여 구분한다.

▲이렇게 하면 감점 당한다=너무 긴 문장이나 수동태, 이중부정, 현학적 표현,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또한 문체를 혼용하거나 인터넷 용어, 은어, 속어 등을 쓰는 것은 피해야 한다. 갑작스런 논지 전환과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 문장도 좋지 못하다.

이 중 권

시험대 수학교육과 교수

CS광장 이용 안내

CS광장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자격과 주제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CS광장에는 우리 대학과 관련된 불만사항, 개선의견, 고충 민원 또는 충성감고 하고 싶은 이야기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올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질의 응답은 학교 홈페이지의 'Q&A'를 이용하여 주시면 더 빨리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S광장 'e-민원'에 올린 민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나요?
학생 여러분이 올려주신 민원은 각 담당부서에서 24시간 내(근무시간 기준) 접수하여 3일 이내 답글 처리해 드립니다. 민원이 접수되고 답변이 등록되면 민원 게시자의 메일과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 실시간 알려드립니다. 교직원 모두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정확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고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CS광장은 왜 실명제로 운영되나요?
CS광장은 학교 발전에 대한 여러분의 손소리를 지니고 계시는 곳입니다. 익명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 무책임한 발언 등에 의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배다른이기에 실명사용의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명사용으로 인한 부담이 있으시더라도 서로 예의를 지키는 인터넷 게시판 문화를 위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린 글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나요?
해당 부서에서는 각 민원 게시자의 성명과 신분만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연락처나 소속과 같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혹 민원 게시 후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있다면 주저없이 CS경영팀(02-2260-8807~880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거나 또는 감사하다는 뜻을 어떻게 전할 수 있나요?
민원의 답변을 받아보시면 '민원 평가' 화면이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답변의 신속성, 정확성, 이해도, 친절성, 체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주시고 부족한 내용 또는 추가 질의 사항은 '고객의 한마디'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시행되는 CS경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평가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SLeading university **동국**

여러분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CS 광장
http://cs.dongguk.edu
학교 메인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상단 'CS 광장' 클릭

고객의 소리함
각 건물 수위실 주변에 비치 서비스 전정직원을 청진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와 불만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이건 아니잖아'

이메일
cs@dongguk.edu

전화
022260-8807~8 CS경영팀

팩시밀리
022260-3694 CS경영팀

우편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CS경영팀 고객의 소리 담당자 앞

CS광장
CS광장은 우리 학교와 관련해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온라인 민원 창구입니다.

중간고사 기간, 중간고사 기간, '중간고사'가 관심이 쏠립니다.

여러분의 불만, 애로사항에 대해 바로 답변 드립니다. '민원'을 이용하세요.

이렇게 민원접수하고도 고매한 답변도 받고 변화된 모습도 보이고 싶다면 참 좋은 기회입니다. ~숙고하세요~

민원을 위해 목격이 애로사항 보실 때는 반드시 '고민입니다'입니다.

http://cs.dongguk.edu

CS광장 이용 후기

"****장의 기발하고 감동 소리를 지었습니다."

CS광장을 처음 이용했습니다. 신속한 답변과 대응에 감사드리고, 이러한 민원처리 방식이 대학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매우 만족합니다.

김** (학부생)

"관례관 약한 평소 소용문제"

이렇게 민원접수하고도 고매한 답변도 받고 변화된 모습도 보이고 싶다면 참 좋은 기회입니다. ~숙고하세요~

김** (학부생)

"교수 연구실 이용과 관련된 비록 지리"

캠리스 기획단의 신속한 응답과 해결에 정말 만족했습니다.

박** (교수)

"올해의 과제에 비해 민원에 대한 대응이 민원적인 것 같습니다.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너무 짧은 보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여 주세요."

김** (학부생)

강의평가가 이대로 좋은가

보편적 학사제도, 보완·수정 필요



에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원하는 수업과 교수님이 만들고자 하는 수업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의 실태

다른 대학의 강의평가도 우리학교와 비슷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년째 비슷한 문항을 강의평가에 쓰고 있고 강의평가 후 교수의 피드백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이스트는 우리학교와 마찬가지로 강의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성적을 볼 수 없도록 참여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 서울대의 경우 교양과목에만 강의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형식적인 강의평가의 틀에서 벗어나 강의평가의 실효성을 높여려는 노력을 하는 사례도 있다. 한양대는 강의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자료를 단과대별 업적 평가위원회에 넘겨 교수들의 승급, 승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총학생회는 학교에서 하는 강의평가와는 별도로 자체 공개강의평가를 실시한다. 교양과목을 제외한 모든 전공과목을 대상으로 총학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경희대 부총학생회장은 "학사지원과에서 만든 선다형의 질문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주관적인 의견에 중점을 두고 강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희대 총학생회가 진행하는 공개강의평가 자료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기간 전에 책자로 만들어져 배포된다. 학생들은 이를 토대로 다음 수강신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획일성 탈피 필요

만약 학교가 교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강의평가 공개를 거부한다면 경희대 총학생회의 경우처럼 학생자치기구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자신이 양질의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강의평가는 지난 1993년 한신대를 처음으로 시작돼 우리학교 뿐 아니라 대학가의 보편적인 학사제도가 됐다. 하지만 '친구 따라 강남가기' 식의 제도 차용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형식적인 운영은 형식적인 답변으로 이어져 효과를 심본 발휘할 수 없다. 이는 강좌별, 학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강의평가가 필요한 이유다.

정동훈 기자
gfd1226@dongguk.edu

강의평가의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

학습성과 평가항목 추가해 강의품질 개선에 적극 반영돼야

강의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한쪽에서는 강의평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쪽에서는 교수의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의평가 공개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학교육이 교수의 지식에 의존하던 틀에서 수요자 중심, 즉 '수요 지향적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첨단 기술인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분야에 있어서 해당 학과에서는 산업체가 대학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을 파악하고 이를 교육에 반영하는 것이다. 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 수요를 적극 고려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문의 특성에서 산업체 지식을 보유한 지성인들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세계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수요들을 반영한 교육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수요지향적 교육을 위해서는 '성과 중심적 교육'과 '교육 품질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 즉, 각 교과목에 대한 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목표도 했던 학생들의 능력 향상 정도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고, 졸업 시점에서는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학과의 학습 성과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학습 성과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학기 교과목 및 교과과정을 개선할 때에 반영하는 것도 필수불가결하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첫째, 교과과정을 수립할 때에 반드시 학생들이 졸업할 시점에 갖추어야 할 능력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각 학과의 학생들이 졸업할 시점에서 갖추게 될 능력들을 항목별로 설정하고 그 내용을 학생들은 물론 사회를 대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각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때 길러지는 능력이 무엇이며, 이러한 능력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므로 졸업할 시점에는 능력이 형성됨을 보장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공개해야 한다.

이처럼 각 교과목의 학습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의 품질 보장과 지속적인 발전이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강의 평가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도구다. 이 같은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현재 우리 학교의 강의 평가 항목에는 학습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학교 당국이 강의평가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학습 성과를 항목별로 구체화하고 아울러 학과의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에서 필요한 교과목별 학습 성과 또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강의계획서에 교과목별 학습 성과를 명시해 수강생들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효과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진이 이와 같은 강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 다음 학기 또는 다음 해 교과목 및 교과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생들은 학업이수 가이드 등에 제시된 교과목 이수체제와 교수의 지도에 따라 충실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강의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강의 평가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교육의 품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학교 당국은 교육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진과 학과의 노력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강의평가가 우리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는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교수와 학생, 학교의 삼위일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최미혜 기자
Imisonaral@dongguk.edu

획일적 질문 등 형식적 운영 학생회 차원의 노력·맞춤식 강의평가 필요

강의평가 마감 4시간 전, '아주 그렇다'에 모두 체크, 건의사항은 '고맙습니다'로 통일.

강의평가를 해 본 학생이라면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학생이 강의내용을 직접 평가해 교원의 강의법을 보완하고 학생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던 강의평가. 최근 강의평가는 횡수를 늘리고 교원 성과평가 시스템에 반영돼 교원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이렇듯 강의평가의 비중은 커졌지만 획일적인 질문과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 부족으로 자료의 신빙성을 잃고 있다. 강의평가의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한 성격의 강좌를 평가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다. 2학기부터는 영어강좌에 대한 질문이 따로 마련되긴 했지만 여전히 각 강좌의 특성에 맞는 질문은 부족한 실정이다. 고전세미나, 작문과 발표 등의 모둠수업, 실험 수업 등 각 강좌의 성격에 적합한 평가 질문이 마련 돼 있지 않은 상태다. 또한 2학기의 경우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인해 강의 환경이 나빠짐에 따라 '강의환경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그렇다면 강의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원은 강의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교원은 강의평가 자료를 학교 정보통신망인 그룹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생 개인의 평가는 보여 지지 않고 항목별 점수 분포도를 볼 수 있다. 또한 건의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돼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강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저 정보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이 평가를 하는 주제임에도 평가 결과를 볼 수 없어 강의평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세계화의 이해' 수업을 진행하는 정창익 강사는 "학생들이 강의평가를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이해한다"며 "다만 강의평가 점수를 위한 인기영합적인 강사가 이뤄지지 않을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학교 측에서도 강의평가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교원과의 마찰을 우려해 조심스러워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준영(경제2) 군은 "교수님들과 강의평가 이후

현 강의평가의 문제점

우리학교의 강의평가는 지난 2000년 2학기부터 인터넷을 통해 실시됐다. 초창기 참여율은 70%에 불과했으나 현재 강의평가 참여율은 90%를 웃돌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강의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 성적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못해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미나(사과대1) 양은 "많은 학생들이 성적을 보기위해 강의평가를 한다"며 "결과가 공개돼서 다음 수강신청을 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무처는 "강의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율이 높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제재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지책이다"고 밝혔다.

강의평가의 질문내용이 획일적이어서

학생 입장에서 바라본 강의평가

평가결과 공개는 시대흐름의 대세

우리학교는 강의평가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호학기부터 중간 강의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매학기 1회만 시행하던 강의평가를 이번호학기부터 중간·기말 2회씩 확대한 것이다.

기존의 강의평가는 강의가 끝난 방학 무렵에 진행돼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뤄지지 않았다. 중간 강의평가가 더해짐으로써 학생들이 수업에 요구하는 개선사항이 학기 내에 반영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하지만 이렇게 평가 횡수를 늘린다면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강의의 질을 높이고 교수와 학생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려는 처음

의 의도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의평가제도는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에 응답하도록 요구만 하고 있다. 실제로 평가 결과가 교수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강의 개선에 참고가 되고 있는지 학생으로서 아무 것도 알 수 없다.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하거나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수들에게 단과대별 '최우수 강의상'을 수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매 학기 수강할 과목을 선택하는데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가 이뤄지는 데에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평가의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수업내용이 좋아도 재미가 없다거나 학점을 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수들의 권위가 침해되지 않는 적정 수준의 범위에서 결과를 공개한다면 강의평가가 학생들의 인기에 영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씻어낼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의평가제도는 다소 형식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학사일정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이 제도가 허울 좋은 관례행사에서 벗어나 좋은 면학풍토를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그 결과를 공개하는 문제가 적극 논의돼야 할 것이다.

정영아(사과대 경제3)

아동미술심리지도사 겨울방학 특강 안내

미술치료란, 매체를 경험하며 작업과정속에서 내면과 무의식을 탐색하고 내면적 갈등을 스스로 치유해가는 과정입니다. 아동의 미술적 심리 발달을 연구하여 나아가서는 노년기까지의 전 인간의 문제적 갈등을 예방, 치유하며 자격증도 준비합니다.

교육기간 : 2008년 1월 2일(수) ~ 2월 28일(목)
7.5주 각 강좌별 45시간

강의시간 : 초급반 : 수요일 10:00 ~ 17:00
중급반 : 토요일 10:00 ~ 17:00
※ 초급반, 중급반 동시 수강 가능합니다.

수강료 : 과목당 300,000원

특기 사항 :
- 180시간 이수 후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협의회 아동미술심리지도사 자격검정시험 응시자격 부여

자격취득요건 :
1. 본 과정 180시간 이수자로 자격기본법 18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접수기간 : 2007. 12. 3(월) ~ 12. 21(금)

접수처 :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계좌입금 후 전화
(T.2260-3730/3729)
(신한) 계좌번호 140-002-017211 동국대학교

주산활용수학교육사 겨울방학 특강 안내

교육목표
놀이학습도구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주산을 활용하여 유아, 초등학생들에게 기초수학을 지도할 수준 높은 교사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기간 : 2008년 1월 2일(수) ~ 2월 28일(목)
7.5주 각 강좌별 45시간

강의시간 : 기초반 월, 수 10:00 ~ 13:00
심화반 화, 목 10:00 ~ 13:00

수강료 : 300,000원

특기사항 :
- 90시간 이수 후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협의회 주산활용 수학교육사 자격검정시험 응시자격 부여

자격취득요건 :
1. 본 과정 90시간 이수자로 자격기본법 18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접수기간 : 2007. 12. 3(월) ~ 12. 21(금)

접수처 :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계좌입금 후 전화
(T.2260-3730/3729)
(신한) 계좌번호 140-002-017211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

제5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 원 서 접수 : 2007. 11. 26 ~ 12. 5
○ 합격자 발표 : 2007. 12. 7(금)(인터넷 및 개별통지)
○ 등록 기간 : 2007. 12. 10(월) ~ 12. 14(금)
○ 수업 기간 : 2007. 12. 24(월) ~ 2008. 1. 25(금)
월, 화, 수, 목, 금 09:30 ~ 17:00

【교육과정】
○ 총 122시간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최소 수업 시간 120시간)
○ 1주 5일(월~금), 1일 6시간(09:30~17:00)
○ 수업 내용(국어기본법에서 규정한 교과과정)
- 한국어의 구조에 관한 지식 (30시간)
- 언어의 일반 원리 및 응용언어학에 관한 지식 (12시간)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 방법 (48시간)
-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 (12시간)
- 참관 및 실습 (20시간)
○ 담당 교수진
- 분교 국어국문, 국어교육, 외국어교육, 문화 전공 전임 교수
- 국내의 학부 및 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 교수
-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교수

【등록 방법】
○ 전형료: 3만원(원서 접수 시 통장 입금)
○ 등록금: 100만원(교재비 포함)
※ 분교 통문, 외국인, 전·현직 한국어 강사: 등록금 20% 할인(증명서 제출)
※ **분교 재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 등록금 40% 할인(휴학생, 수료생 포함)**

○ 입학계좌 : 신한은행 140-007-491785(한국어교원양성과정)
○ 접수 방법
- 전자우편 : ie@dongguk.edu
- 방문·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해파관 1층)
(단,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음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02)2260-3472
홈페이지 <http://ie.dongguk.edu> 전자우편 ie@dongguk.edu

서울캠퍼스 정각원장

중 호 합장

동국인의 참회와 발심을 위한

삼천배 철야 용맹 정진

서울캠퍼스 정각원에서는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인 불교정신 함양과 고취를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전에 삼천배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삼천배 철야 정진이 아래와 같이 병행되오니 뜻을 같이 하시는 동국인 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고통과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 시 간 : 2007.12.1(토) 20:30 ~ 2007. 12. 2(일) 05:00까지
※ 매일 첫째 토요일 정기적으로 삼천배 철야정진 기도 봉행 예정

2. 장 소 : 정각원 법당

3. 대 상 : 동국 가족 및 일반인 희망자

4. 준비물 : 염주, 수건, 방한복
※ 초심자, 절을 잘 못하시는 분도 환영합니다.

인문과학부 심사평

비약과 단순화 있지만 텍스트 재구성 뛰어나

다섯 편의 응모작 중에 '현행 설화교육의 문제점과 방안의 모색' 고등학교 국어(상) 교과서 소재 '옹소와 머느리바위' 전설의 금기 화소(話素)를 중심으로'를 장원작으로 추천한다.

공포롭게 다섯 편 모두 국어교육 및 국문학 연구 분야에 편중되어 있었는데, 당선작은 탄탄한 구성과 야심찬 문제 제기, 신선한 접근 방법이 돋보였다.

다른 응모작들도 저마다의 주제를 성실하게 다루는 미덕을 보여주었으나, 연구의 맥락이나 연구 방법론에 대한 천착, 또한 비교론적 지평의 확보에 있어서 각기 아쉬운 대목이 있었다.

장원작 역시 대상 텍스트에서 사회적 규범 대 개인의 욕망이라는 대립구도를 읽어내는 데 있어 약간의 비약과 단순화를 무릅쓰고 있지만, 하나의 텍스트를 통해 세계를 읽고 재구성해 내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결점을 충분히 상쇄했다고 생각된다. 정진을 바란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야에서 더 많은 응모자들이 공부와 글쓰기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기를! 권보드래(교양교육원 교수)

소설부문 심사평

깔끔하고 섬세한 문체 튼실한 내공이 느껴져

총 네 편의 작품이 본심에 올랐다. '악수'와 '지금은 아무도 거기에 앉지 않는다'가 섬세한 감성과 서술의 미학을 추구한다면, '칼릴레이'와 '비계 위에서'는 역동적인 사건의 전개에 비중을 두고 있다.

'비계 위에서'를 가작으로 뽑는다. 공사판을 전전하며 아버지를 찾으려는 대학생이 주인공이다. 이 작품은 노동현장에 있는 건장한 남성들의 거친 목소리가 미덕이다. 현실의 재현에 충실하고자 하는 정통 리얼리즘 소설의 맥을 잇고 있으며, 아버지와의 불화가 드러나는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가 끼어드는 방식이 이 거친 서사의 전개 과정에 재미를 주는 요소다. 플롯을 다루는 재능이 보인다

의 뜻이다. 결말의 부자 상봉 장면이 다소 억지스러운 게 아쉽다. '지금은 아무도 거기에 앉지 않는다'는 '비계 위에서'와 기법상으로 반대편에 있는 작품이다. 꿈과 현실을 오가는 장면, 그로테스크하고 환상적인 분위기가 마치 애니메이션 서사를 보는 듯하다. 창의와 상상력,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언어의 자유로움에 대한 실험정신이 돋보인다. 그러나 이런 미덕들을 뒷받침해주는 진정한 힘은 이 소설의 문체이다. 기교한 밤의 이미지, 피아노의 질감과 소리와 인물의 내면을 묘사하는 부분들이 깔끔하고 섬세하며 웅송깊다. 내공이 느껴진다는 뜻인데, 글쓴이의 장래에 대한 일종의 믿음으로 이해 해주면 좋겠다. 하여 장원으로 선한다. 두 사람의 수상을 축하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인 정진을 바란다.

문재웅(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제45회 동대 학술상 제22회 동대 문학상



왼쪽부터 소설 가작 안성훈(문예창작4), 시 가작 이세라(국어국문2), 희곡·시나리오 가작 오민아(문예창작3), 시 장원 류진(문예창작2), 소설 장원 김동화(문예창작4), 희곡·시나리오 장원 구성민(국어국문3), 인문과학 장원 민지훈(국어교육3)

2007학년도 동대학상 수상자 명단

Table with 5 columns: Department, Category, Winner (Affiliation), Work Title, Prize Amount. Lists winners for Humanities, Social, and Natural Sciences.

2007학년도 동대문학상 수상자 명단

Table with 5 columns: Department, Category, Winner (Affiliation), Work Title, Prize Amount. Lists winners for Poetry, Novel, and Drama/Screenplay.

동대문학상 시부문 장원

주산지의 왕버들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

류 진(예술대 문예창작학과2)

주산지에 서식 중인 오백년 묵은 나는 절대로 썩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내 먹살을 잡아채려고 하는 것인데 저수지의 졸다란 독기를 따라 걸으며 한 연인이 말했다 평생 수면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반성하거나 저렇게 잎이 푸른 거러요 나는 내 먹살을 잡아 내동댕이치고 싶은 것인데 그러니까 주산지의 물비늘이 소용돌이치는 것인데 나는 오백년 동안 뿌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맑은 날이면 뿌리에 이파리가 무장무장 돋는다 수면에 비친 뿌리가 이파리 돋은 뿌리를 자꾸만 반성시킨다 꿈꿀 뿌리가 익사하였으므로 나의 꿈은 불면, 달빛이 허리까지 차오르면 달빛을 이그러뜨리는 것이 나의 반성이다 반성하기 위해 반성하는 나의 증오다 내가 나를 익사시키려는 미움을 못 본 척 연인들은 독기를 따라 저만치 늘어갔다 썩어야지 불멸인데 썩어야지 불멸인데 반짝이는 물비늘마다 눈물이기에 거기에 지지 않는 푸른 이파리 하나 없어본다

* 본사 홈페이지(http://www.dgupress.com)에서 전체 당선작품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시부문 심사평

투고작 많지 않았지만 모든 작품이 수준 높아

투고자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투고작의 수준이 모두 일정한 수준 이상이어서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다. 우수한 작품을 많이 접하는 것은 심사사의 큰 즐거움이기도 하다. 투고자의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심사했기 때문에, 작품명을 중심으로 심사평을 적는다.

최종적으로 당선 후보가 된 작품은 '주산지의 왕버들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의 2편, '노을'의 3편, '눈감고 가는 여행'의 8편, '이 나무가 죽는 법'의 2편, '습관적 기행의 기록'의 3편 등이다. 다섯 명 투고자의 작품 중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주산지의 왕버들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를 당선작으로, '노을'을 가작으로 정했다.

당선작의 장점은 무엇보다 절제된 언어와 사교의 깊이에 있다. 다른 투고작인 '시월' 등의 작품에서도 이 점이 잘 드러났다.

가작인 '노을'은 숙달된 시적 화법과 내면적 언술이 호소력을 갖추었으나 다른 작품에서도 간혹 보이는 결말부 긴장의 서투른 '이완'이 다소 결함으로 여겨졌다.

이 외 '눈감고 가는 여행', '산책'의 투고자는 개성적인 수사, 화법이 눈길을 끌었으나 완성도 면에서 앞의 두 작품에게 아쉽게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격려의 말을 보낸다. 탈락한 다른 투고자들도 그 역량을 계속 키워 '기성문단'에 재도전하기를 바란다.

김준식(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희곡·시나리오부문 심사평

원숙미 흘러넘치는 작품 극작가의 임무에 충실해

올해의 응모작들은 예년의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작들이어서 무척 반가웠다.

'불놀이 가자'는 정제된 대사가 일품이었다. 작품 곳곳에 작가의 열정이 배어있어 호감이 갔으나 도입부의 상황 설명이 절절한 감성으로 다가오지 않는 점이 못내 아쉬웠다.

'빨래'는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꽃처럼 예쁜 작품이었다. 작품을 읽는 내내 상징과 비약이 충돌하며 다양한 상상과 발칙한 도박을 꿈꾸게 해주었다.

'트럭'은 습작기에 있는 학생작품 같지가 않았다. 그만큼 원숙한 작품이었다. 희곡은 공연을 전제로 한다. 흥미롭게 출발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그 흥미 속에 더 빠져들게 해야 하고 공연이 끝났을 때 긴 여운과 진한 감동이 남아야 한다. '트럭'은 바로 이런 극작가의 임무에 충실한 작품이었다. 인물이 생생하게 살아있어 생동감이 넘쳤으며, 양과 곱질을 하나씩 벗겨가던 인물이 클라이막스에 다다르자 속살을 드러내며 미인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하여, '트럭'을 장원으로 '빨래'를 가작으로 선한다.

이만희(영산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동대문학상 출신 임세화 양 창작과 비평 신인소설상 수상

'긴장된 묘사 집요' 평가 "그저 잘 쓰는 것이 목표"



"긴장된 서술이 쉬이 지워지지 않는 이미지들과 어우러져 주인공의 어둡고 파괴적인 내면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고 있다." 창비 신인소설상을 받은 임세화(국문 석사2학기) 양의 '모래늘의 기억' 심사평이다. 하지만 지면이 아닌 실제로 만난 임세화 양은 만남과 수다를 좋아하는 밝은 사람이었다.

"소감이요? 좋는데 무서워요." 소설본과 친구들과 한편씩은 꼭 쓰기로 약속해 쓴 것인데 이렇게 등단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수상 소식을 듣고 한 달간 아무것도 손에 잡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격려의 말을 듣고 나면 걱정이 태산 같다고. 임세화 양은 시 '빛줄'과 소설 '만두'로 2004년과 2006년 연거푸 동대문학상 장원을 차지했던 '일한' 문재(文才)다. 그녀는 이렇게 수상했을 때 큰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소설 쓰는 일이 자기만의 싸움이라 가시적 성과가 없어 자괴감에 빠지기 쉽거든요"라며 "계속 한번 열심히 해보라"라는 격려를 받은 것 같았다"고 수상 당시를 기억했다.

그저 '잘 쓰는 것'이 목표라는 그녀는 학부생 때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못했었다며 경험이 없는 것이 자신의 고쳐야 할 점이라고 고민을 털어 놓았다. 하지만 그녀는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서 소재를 찾아내고 있었다. 사승농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 '모래늘의 기억'의 시작은 어머니가 사승농장에 다녀오신다는 말을 듣고부터라고 한다. "어머니가 실컷 사승농장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는 데려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가서 피도 쪽쪽 빨아먹고 고기도 먹고 싶었는데"라고 말하는 그녀. 결국 인터넷이며 책이며 마다 읽고 뒤져 사승농장 이야기를 완성시켰다.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 책상에 책이 그득히 쌓인다는 그녀는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많이 읽고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새삼 깨우치게 한다. "나는 내가 아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시 '꿈, 견디기 힘들'의 한 구절이다. 힘들 때마다 되짚었다는 그 시구는 소설을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고 한다. 여러 보이지만 앞으로 나아가길 힘과 강력한 이야기들을 가진 그녀. 앞으로도 시선을 땔 수 없음이 분명했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DMZ 평화·생태포럼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에서는 DMZ 평화·생태포럼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일시 : 2007. 11. 28(수), 14:00 ~ 17:00
2. 장소 : 문화관 덕암 제3세미나실(2층)
3. 발표 내용 : 사회자 강성운 교수

Table with 2 columns: Session (제1주제, 제2주제, 제3주제) and Content (DMZ 평화지대화와 남북관계, DMZ 보존과 활용의 제문제,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방안).

4. 문의 : 북한학연구소 02-2260-3508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7년 산업기술연구원논문집 논문 모집

산업기술연구원에서는 2007년 산업기술연구원논문집 제17권 2호에 실릴 논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04년도 개정된 교원임직평가 규정에 의해서 본 논문집에 논문을 게재 할 경우, 교원임직평가 평점 40점)에 반영되는 것을 참고하시고,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산업기술연구원 논문집 제17권 2호는 2008년 2월에 발간 예정입니다.

- 1. 논문 투고 일자 : 2008년 1월 11일 까지
2. 제출처 : 동국대학교 산업기술연구원(1관 : 2260-3519)
3.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논문투고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교내 3519 또는 8516(담당자:김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산업기술연구원

DMZ 평화·생태포럼 포스터. 제목: 벗꽃동산. 2007. 11. 30 - 12. 4. 동국대학교 예술극장.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연극학부 제45회 졸업공연

벗꽃동산

작 | 안톤 체흠 지도교수 | 이운택
기획 | 윤덕현, 백준현 연출 | 이근표
출연 임영진, 장정석, 엄기철, 정현우, 김성겸, 고희준, 김소희, 정운선, 이보희, 정보람, 최성필

동국대학교 예술극장
2007. 11. 30 - 12. 4 오후 4시, 8시

주관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연극학부
후원 | 동국대학교 연극영상학부 총동문회, 동국대학교 예술인들의 모임

생활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안내

본교 생활협동조합원은 복지향상 및 학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4년 학내 체주제(교원, 직원, 대학원, 학부)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성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생활협동조합원은 학교로부터 학내 복지시설(식당, 매점, 안경원, 여행사 등)에 대한 관리를 위임 받아 적영 및 임대/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며 발생하는 수익금은 구성원들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생활협동조합원의 근원 및 동력으로 가입신청서 작성 및 출자금 1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자격이 생기고 주체별 단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생활협동조합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탈퇴시 출자금은 입금계좌를 통해 반환됩니다.

생활협동조합원을 위해 불교문화유적답사, 귀향버스사업, 장학금 수혜 등 다양한 내용의 행사와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서점에서만 진행하는 마일리지제도를 늦어도 08년 3월부터는 식당, 매점 등 복지매장 이용시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학내 복지시설을 이용하면서도 가입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구성원을 위하여 가입방법을 안내 하오니 동참하시어 생활협동조합을 보다 활기차게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입방법

- 1. 직접가입 : 생활사무실(해화관 1층) 내방 후 가입신청서 작성 후 가입
2. 생협 홈페이지(dgucoop.dongguk.ac.kr)를 통한 가입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카드 발급안내

T-Money가 내장된 조합원카드를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1. 발급예정 : 2007. 12. 3(월)부터
2. 발급장소 : 생활사무실(해화관 1층)
3. 발급카드 : T-Money가 내장된 조합원카드
4. 이용장소

- 가. 조합원카드 교내 복지매장(식당, 매점, 서점/문구점)사용가능
나. 조합원카드 교외포동 사용가능
5. 카드 이용혜택 : 3% ~ 5%할인 혜택
6. (구)조합원카드 이용
가. (구)조합원카드 발급, 마일리지 중단 : 12. 3(월)부터
나. (구)조합원카드 발급, 서점 마일리지 적립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점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적립된 금액만큼 할인을 제공 합니다.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동아은 시골버적

독자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만화, 만평, 4매 분량의 글 등을 게재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ongguk.edu
 TEL : 2260-3491~2 FAX : 2279-1270

증축된 공간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문화관 1개층 증축 ... 작업실 · 학생회실 여전히 부족

시골시골, 시끄럽다. 굉장히 시끄럽다. 어 기저기 시끄럽다. 문화관이 시끄럽구나. 물이다. 물이 샌다. 물이 졸졸 샌다. 문화관에 물이 졸졸 새는구나. 젖는다. 흠뻑 젖는다. 나의 작품이 젖는다. 너의 작품이 젖는다. 한 학기 작품이 물에 젖는구나. 아하하하하하하. 수업중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거야. 왜 지진이 일어나는거야. 이런 말할 증축 공사. 이 놈의 증축 공사. 예술대 증축 공사 언제 끝나는 것일까. 8월 9월 10월 11월. 계속 늦춰지는 완공 날짜. 언제까지 늦출 텐가. 가르쳐다오 나에게

가르쳐다오 나에게. 건축 하나는 제대로 배웠구나.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천장은 하늘을 본 떠 열려있고 사이사이로 하늘의 눈물이 흘러 내려와 예술대의 작품들을 적시니 학우들의 눈시를 또한 적시나니 이 어찌 좋을쏘나. 학교는 얼씨구 좋다 아무 말이 없구나.

9월 21일 금요일 문화관, 한 학생이 미끈한 계단을 걸다가 미끈하게 미끄러져 피가 철철 미끈한 계단을 걸쩍지근하게 적신다. 그 일이 있은 후 드디어 미끈한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물이 설치되었다. 왜 학교는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시설조차도 마련하지

않으면서 리모델링이다 증축이다 떠들어대는 것일까.

그렇다면 과연 증축된 공간은 우리가 사용하는가. 그것도 아니다. 예술대 어느 과에선 증축된 공간을 일부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것 또한 불투명한 사실. 우리들의 작업실은 좁아 미어 터지고 미술학부는 과 학생회실조차 없는 지금. 과연 그렇다면 증축된 공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작업 환경과 수업 환경을 침해받으며 온갖 고통을 감수한 것은 분명 예술대인데 예술대의 공간이 아니라 하는 것은 무슨 조화일까. 무엇일까.

비싼 등록금 내고 학교 와서 작품 활동에 힘 쏟으니 등록금으로 증축을 한다며 작품 활동 망치네. 학교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고통은 생각도 않은 채 증축 공사에 자금심을 느끼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네. 아 이러니. 부조리.

인상옥 (예술대 문예창작2)

‘차세대 여성 리더십 증진 교육’을 다녀와서

‘여성리더’에 한발짝 다가선 시간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로 열린 차세대 여성 리더십 증진 교육은 짧다면 짧은 교육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나게 해주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던 주한미국대사관 영사님도 볼 수 있었다. 또한 국제기구 체험자인 경희대 대학원생과 컨설팅 교육업체인 ‘파도인’의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강의들을 들었다. 주한미국대사관 영사님의 강의에서는 여성의 능력, 자질 리더십에 대해 강조했다. 지도자의 이미지는 여전히 남성 이미지이다. 또한 기업의 최고 경영진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력하다는 미국 사회에서도 16%만이 여성 최고경영자가 존재한다고 했다. 한국은 만 명 중 0.02%만이 최고경영자

라고 하니 우리의 현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영사님이 이의를 창출하는 현명한 행동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바로 준비자세, 균형, 네트워킹이다. 준비 자세에서는 “철저히 준비하고 결정하며 약속 장소에 빨리 나타나기 등의 행동을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출선수법까지, 꿈과 이상을 구분하기, 유연성 지닌 상사 찾기 등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또한 균형부분에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 그리고 가정에서의 엄마로서의 역할, 회사에서의 리더로서의 역할 균형에 대해 강연해주었는데, 영사님의 진구 일화를 소개해 주어 알아듣기 쉽고 재미있었다. 더불어 네트워킹은 포괄적인 용어라며 공

격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전업주부의 능력을 도외시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인생은 우리의 용기에 따라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들은 영사님 강의 외에 나머지 강의에서는 우리의 영역을 정해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서로간의 협동을 하면서 종이 계획서를 적어 보았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토론했다. 서로 다른 대학생이지만 각자의 꿈과 열정이 녹아있기에 함께 할 수 있었다. 원래 이 프로그램은 연세대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5개 대학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우리학교의 지원이 충분하게 이뤄진다면 ‘우리학교에서 더 많은 여성리더가 탄생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1박 2일이지만 많은 것을 갖게 해준 이 캠프가 즐거웠다. 허소원(경영대 정보관리3)



식별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4학년 1학기가 끝나자마자 강원도 원주시 단기출가학교로 들어갔다. 주변에서는 취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여름방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 일은 앞으로 남은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속세의 생활에 젖어 있고 지냈던 나를 찾는 기회는 지금이 아니면 다시 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기출가를 결심했다. 단기출가는 쉽지 않다.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한다. 나를 뛰어 넘어 진실한 자신을 찾는 것,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찾는 수행을 하는 것이 단기출가를 하는 목적이다. 비록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소양을 쌓기 위한 수행이더라도 행자(수행하는 사람)들은 식별과 연비의식을 치른다. 또한 절의 시적인 일주년부터 월정사 팔각 구층석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체험기

나의 ‘자아’를 찾아 떠난 3주간의 수행 무엇하나 버릴 것 없는 소중한 시간

탑까지 삼보일배를 해야 했다. 산사의 생활은 그 때부터 시작이다. 한 7일이 지났을까, 모든 것이 낯설었던 산사의 생활에 차츰 적응하기 시작했다. 이때 오후 불식이라는 수행이 더해진다. 오후불식이란 아침 11시 30분에 점심 발우공양 후 다음날 아침 발우공양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다. 식탐이 별로 없던 나로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막상 하게 되니 육체적 수행으로 몸이 많이 힘들어지면서 배고픔의 벽을 뛰어넘기가 고달팠다. 오후불식은 약 8일간 했는데, 이때 나의 체중의 변화는 하루하루 눈에 보였다. 80kg이었던 몸무게가 무려 2주 만에 7kg이 빠진 73kg이 되었다. 힘들었던 수행을 하면서 얻은 뜻밖의 수확이었다. 졸업하기 전날 모든 행자들은 저녁예불 후 삼전배를 해야 한다. 저녁 7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끝마칠 수 있었다. 8시간 동안 부처님 앞에서 모든 행자들이 삼전배를 끝마쳤다. 행자들이 나오자 없이 삼전배를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옆에서 동참해주신 우리의 참중스님(일만스님)과 서로를 격려했고 도와준 모든 도반(행자)들 덕분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삼전배를 다했을 때 많은 도반들이 울고 있었다. 그 이유는 모두 다른 것이었을 테지만 그 마지막 삼전배를 통해 얻었던 깨달음,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것을 실감했을 그 때의

감정 등일 것이다. 그러나 모두의 가슴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똑같이 울려 퍼졌으리라고 생각한다. 모든 도반들이 졸업할 때까지 한 사람당 만배 정도의 절을 한 거 같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절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옆 사람을 위해서 하게 되고, 나아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하게 됐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며 절을 할 것이다. 절을 하는 것만이 수행의 전부는 아니다. 참선하고, 불경을 독송하고, 사경을 하는 등 많은 것들 중에서 수행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절을 하는 것에는 나 자신을 하심(下心)하는 것과 육체적 고행으로 자기 자신을 다듬는 수행이 모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약 3주간의 생활은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짧은 글로 나의 모든 생각과 느낌을 전해지지 못하겠지만 말 못한 여러 가지의 수행 또한 많은 것을 느끼고 깨우치게 해주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정각원에서는 보통 오전 8시 30분에 아침 예불을 올린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 여유로움을 느끼면서, 우리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해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좀 더 넓은 안목과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고상훈(공과대 전자공과4)



행자들이 모여 앉아 염주를 꿴고 있다



적멸보궁으로 향해 삼보일배 하는 모습

달하나 천강에

가족을 가족으로 만드는 것은?



전미경
시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내 안에 숨어있던 편견은 느닷없이 출몰하여 나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나는 종종 아무 근거도 없이 중년의 사람들을 기혼자로, 부모로만 들어 버린다. 이유가 없다. ‘그래, 때가 되면 결혼을 해야 하고, 결혼을 하면 자식을 낳아야 하고, 이런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시대를 살아온 결과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다. 하루도 안 빼놓고 싸우는 부모에게 ‘따로 따로 행복하게’ 살라고 하면서 부모의 ‘끝존식’을 치러주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이혼한 아빠의 새 여자친구,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의 동거가 차가운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피 한방울 섞일 수가 없는 에르네스트 곰 아저씨와 셀레스티느 쥐 아기가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왜 우리집 아이들은 나처럼 생각하는가 말이다. 나보다 훨씬 조금밖에 살지 못했으면서도! 모든 아이들에게는 엄마와 아빠

가 있으며, 가족이라 함은 결혼과 혈연으로 맺어진 엄마, 아빠, 아이들의 집단이며, 이러한 가족은 시대의 변화를 뛰어 넘는 보편적 제도라는 ‘가족’에 대한 통념은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학습되고 있다. 대표적 공간으로 아이들의 ‘교과서’를 들 수 있다. 아이들 속재를 바꾸면서 보게 된 초등학교 교과서에 ‘가족’은 너무나 고정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빠는 넥타이를 매고, 엄마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모습은 접어 두더라도(아직도 그렇다!), 교과서의 가족은 거의 대부분 1~2명의 자녀를 둔 핵가족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하여 전 학년의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 형태를 세어보니, 70%가 넘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격언도 발견하였다. 딸아이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교과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을 엄마와 함께 배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별, 바위, 역새풀이 의인화되는 순간 아기별-엄마별, 아기바위-엄마바위, 아기역새풀-엄마역새풀로 환원된다. 왜 아이들의 ‘관계’는 ‘가족관계’로만 수렴되는가. 가족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식상함만 준다. 우리 사회의 가족변화는 상당히 급격하다. 함께출산율은 1.08명으로, 평균가족원수는 3.1명으로 줄었다. 사별과 이혼으로 한부모가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0쌍 중의 1쌍이 국제결혼이고, 특히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은 지난 15년간 50배나 증가하였고, 조

손가족도 지난 10년간 65%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교과서에는 이들 다양한 가족은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수 등장하는 이들 가족은 모두 빈곤하고 예외적인 가족으로 묘사된다. 한부모가족에게 부재한 ‘아버지’ 혹은 ‘어머니’는 ‘결손’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부모 없는 설움을 이야기하는 소녀가장의 눈물 어린 일기는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토록 만든다. 교과서 독자가 소년가장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없을 수도 있고, 부모에게 유기된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듯하다. 차별의도가 없더라도 핵가족만을 정상적인 것으로 본다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은 예외적이고 문제적인 것이 된다. ‘바람직한 가족’으로서의 핵가족은 절반이 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코시안’이라는 신종어가 암시하듯이 ‘단일민족’이라는 신화는 다문화 사회에서 거북스러운 것이 되었다. 가족을 ‘가족답게’ 만드는 것은 가족형태나 혈연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인 친밀감과 이상의 공유이다. 가족에 관한 우리의 지향은 ‘핵가족의 회복 혹은 복원’이 아니라 가족을 가족답게 만들어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노력을 시도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관계’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심, 애정, 노력이 필요하듯이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가족을 도덕적인 규범으로 접근한다면 현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가족의 현실을 구제하고 개선할 수도 없다.

독자 사진첩



이승호(정신대 컴공4)

우두커니 서서 ...

왜 머물러만 있는거냐고
 바람이 내게 물어보길래
 고개 숙인 채 웃다가
 속으로 웃다가
 일새 하나 띄워보냈네

‘퀴리부인은 무슨 비누를 썼을까’ 저자와의 대화 참가기 생활 속 궁금증 화학으로 풀어내

책을 읽는 것은 그 책의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 독서를 통해 거리를 좁히고 저자에게 다가갈 수 있지만, 그를 직접 만나 실제로 대화를 나눈다면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저자와의 만남은 책을 더 깊게 이해하고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저자와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과 저자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데, 이번 ‘퀴리부인은 무슨 비누를 썼을까’를 통해 5화제를 맞이했다. 저자인 여인형 교수님은 우리학교 화학과에 재직 중이시라 더욱 뜻 깊은 자리였다. 교수님의 제자이신 화학과 학생들도 많았지만, 문과나 사회계열 학생들도 많이 참여했다. 때문에 더욱 다양한 범위의 지식을 교류하는 장이 되었던 것 같다. ‘퀴리부인은 무슨 비누를 썼을까?’는

한국강원물리위원회의 ‘이달의 읽을 만한 책’에 선정된데 이어, 문과관광부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된 책으로, 과학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들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화학 이야기이다. 책에 대한 강연을 통해, 생활 속에서 만나는 화학에 관한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 수 있었다. 책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본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 덕분에 무척 활기찬 분위기로 진행되었는데, 그 중 일반인 자격으로 참여한 어느 노신사분의 질문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 내용은 “화장품을 제조해 병에 담을 때는 그 병이 화장품을 견딜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일정기간 테스트를 거친다. 그런데 왜 화장품을 담을 때는 그 병이 화장품에 견딜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테스트를 거치지 않는 것일까?”는 질문이었다.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질문이라 관심이 갔는데,

덕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화학의 이론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교수님께서 화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신 개인적인 이유에서부터 책 제목에 얽힌 이야기 등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질문을 통해 저자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자연스럽게 책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있었다. 사실 이번 행사 진행시간이 수업 시간과 겹쳐서 약간 고민도 했었다. 그러나 과감히 수업을 포기하고 참가할 만큼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참가 신청 선착순으로 해당 도서가 증정되고 질문을 한 학생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주어지는데, 도서 소장도 상품권 혜택의 기쁨까지 누리게 되어 더욱 뜻깊은 시간으로 기억되었다. 다음번에 있을 새로운 저자와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그때 꼭 참가하리라 다짐해본다. 강은별(사과대 행정3)

흔들리는 기축통화, 달러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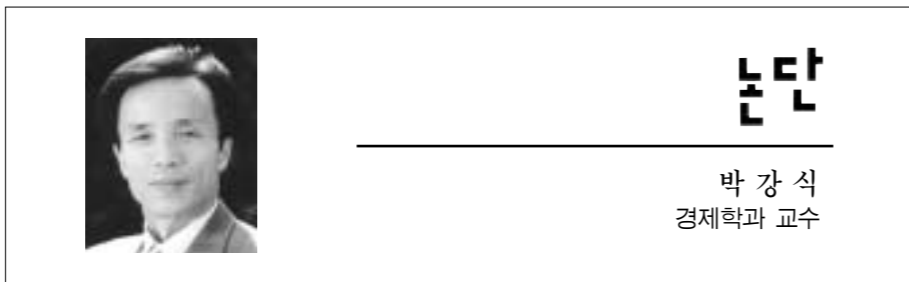
가치 안정성 위협... 국내자금시장 장기대책 필요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국제무역과 금융시장의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실제로 미 달러화의 원화,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하여 지난 10년 동안('98-'07.3분기) 각각 33.6%, 9.8%, 18.2% 평가절하 되었다.

특정 통화가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유동성(지급준비금)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 가치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어야 한다.

넘쳐나는 달러화의 약세

그러나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적자가 지속됨으로써 국제자금시장에 달러화가 넘쳐났고, 동시에 큰 폭의 재정적자가 경상수지적자로 이어져 달러화의 약세를 부추겼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주택대출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이 경기침체 우려를 낳아 정책금리가 인하됐고 앞으로 더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져 달러화 가치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를 팔아 원이나 채권과 같은 보다 안정적인 자산으로 자금의 대 이동이 일어나, 유가는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채권 값은 폭등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동 산유국들은 보유외환에서 달러나 달러표시 자산의 비중을 줄일 계획이고, 특히 석유수출국



논단
박강식
경제학과 교수

들은 석유거래의 결제수단을 달러화에서 비 달러화로 전환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중국과 쿠웨이트 등은 자국 통화의 '달러 페그제'를 폐지하였다.

그렇다고 지금까지와 같이 경제 대국의 정책담당자들이 정책 공조를 통하여 기축 통화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예컨대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집요하게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가하여 왔으나 그보다는 중국의 경기과열을 식히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위안화가 절상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전세계에 걸쳐 조직을 갖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운용하는 수퍼펀드 등 자금규모가 워낙 큰데다 고도의 금융기법을 구사하며 전략적화처럼 세계 자금시장을 누비고 있어, 그들을 규제하여 안정적인 국제통화질서를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달러약세로 급년 들어 미국의 경상수지의 개선기미가 나타나고 있는 있지만 앞으로 미국이 긴축재정으로 전환하고 경

상수지 적자를 줄여 경제가 견고한 경제성장세를 회복하기까지는 달러화 약세가 불가피할 것이고, 달러화 회피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달러화를 대체할 통화없어

그렇다고 달러를 대체할 만한 통화도 없다. 유로화는 도입한 역사가 일천하여 EU 전체 회원국에서 사용하지도 않고 있고 전 세계 상거래에 충분할 만큼 유동성이 풍부하지도 못하다. 엔화는 가치의 안정성은 있으나 유동성면에서 유로화보다

주요 통화의 대 달러화 환율, 미국 경상수지

통화별	1998(a)	2002	2006	2007년-3분기(b)	((b-a)/b,%)
원/달러	1,398.9	1,251.2	955.5	928.2	-33.6
엔/달러	130.9	125.4	116.3	118.0	-9.8
유로/달러	0.8906	1.0574	0.7964	0.7289	-18.2
미경상수지(억\$)	-2,135	-4,724	-8,566	-3,878 ¹⁾	-

1) 2007년 전반기

나올게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이후 수출확대로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 할 것 없이 값이 폭락하자 외국의 자본이 대거 들어와 자본수지도 크게 개선, 세계 5위의 외환보유국이 되었지만 달러화 비중이 커 보유외환의 구성통화를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책당국이 원고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환시장에 개입도 했으나 막대한 대가를 치러 한계를 맞보기도 하였다. 또 현재 미국의 주택모기지 대출관련 손실을 입은 금융사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대량 매도함에 따라 환율이 급상승할 정도로 우리나라 자금시장은 대내외 악재에 취약하다.

곧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룰 전망이어서 달러화 약세에 대한 부담은 완화되겠지만 달러약세 나아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이나 무역업체들의 금융기법 향상이 시급하다 하겠다.

보리소

욕망과 원(願)

관음기도 도량으로 유명한 낙산사의 중심법당인 원통보전 복원을 기념하는 낙산식과 범종타종식이,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1만5천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지난주 봉행되었다. 낙산은 신라시대부터 관세음보살이 상주하시는 곳으로 간주되었고, 의상(625~702) 스님이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백화도량발원문」을 지은 곳이기도 하다. 발원의 내용은 관세음보살을 본사로 모시고 본사와 같아지며 관세음보살을 도와, 모든 이들이 관세음보살 깨달음의 무생법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2여 년 전 강원도 일대를 강타한 대형 산불이 천년고찰 낙산사로 불어 닥쳤고, 순식간에 변진 불은 사찰 내 전각 15개동을 태우고 보물 479호인 동종을 녹였다. 대중들도 화마가 덮치지 않은 건물 앞에서 양동으로 몸을 나르며 불을 끄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시커멓게 탄 수풀 위로 빨간 불씨들이 바람에 날려 또 다른 조복에 계속 옮겨 붙었다고 한다.

하던 한 스님이 말했다. “바다물이 저렇게 많아도 불을 끄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염분이 있는 바닷물은 불에 꺼 없으면 불이 더욱 활활 타게 되었다. 불에는 열과 빛이 있다. 빛은 반야지혜를 상징하지만 열은 육화(慾火)라고 하여 욕망의 비유로 사용되어 왔다. 중생이 하고자 하는(=欲) 일은 대부분 욕망의 불을 점점 드세게 하여 자신과 남을 파멸로 몰고 간다. 그런데 욕망의 불이 꺼지게 하는 불도 있다. 번뇌의 열을 녹이는 불은 열이 강할수록 열음이 빨리 녹고, 열음이 녹아 불이 되면 불도 함께 꺼진다. 바로 좋은 욕심이라는 의미의 증상욕(增上欲)이다. 이 증상욕은 열반의 안온함을 얻게 하고 해탈로 이끈다. 만인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는 원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모든 중생들이 고통을 여의고 안락을 얻게 하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을 본사로 모시는 의상스님의 원을 다시금 되새겨 본다.

전 해 주 불교학과 교수

메아리

세가지 토론, 한가지 결론

▲ “100분토론 이번주 방송(11.22)은 쉽다”
MBC 100분토론 홈페이지의 각 주 방송 주제가 게시되어야 할 배너에 쓴 문구이다. 지난 22일 밤 BBK 관련 공방을 주제로 생방송될 예정이었던 MBC 100분토론이 한나라당 측의 갑작스런 불참 통보로 방송이 취소되었다. 한나라당은 ‘순석회의 시선집중’에서 에리카 김과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한 데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고, ‘100분 토론’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었다.
▲ 지난 16일 동대신문과 교육방송국 DUBS는 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토론회 하루 전 기호 1번 측은 야의 공개 토론회로 전환하자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여건상 야의 방송은 어렵다는 말을 전했지만 1번 후보는 토론회 당일 불참을 선언했다. 또한 기호 2번 측도 단독으로 참가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정책토론회는 독자·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취소 됐다.

▲ 교수회와 학교도 ‘토론’을 이야기하며 설왕설래하고 있다. 그들의 고도의 신경전은 지난 10월부터 시작됐다. 총장이 교수회 대의원들과 대화를 요청했고 교수회는 일정을 미루자는 말이 오가면서다. 이렇게 시작된 밀고 당기기는 계속 이어졌고 현재 교수회는 ‘총장의 무능함에 대해 토론하자’, 학교 측은 ‘그런 의제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의견만 오갈 뿐 토론회는 언제 열릴지 미지수다.
▲ ‘토론’이란 어떤 문제를 두고, 여러 사이 의견을 말하여 옳고 그름을 따져 논 의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이 되는 주장을 하기 위해 토론의 개최를 원하는 이는 많지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 진정한 자세를 갖춘 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부터 자신의 정당한 주장을 펼치고 남의 주장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정정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건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대학에서조차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데 어느 사회인을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문서영 문화부장
syooob@dongguk.edu

사설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약

올해 종강하다. 많은 변화가 있는 한 해였다. 학내 언론과 출판 부서가 통합되고, 온라인 뉴스 서비스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상황이다. 오프라인 신문은 비록 종강호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보가 제공된다. 의사소통이 보다 새로워지고 원활해졌다. 방송과 신문과 출판이 결합되었으며, 실명에 입각한 활발한 의견개진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구성원 내부의 이견과 갈등도 이 정보의 우물 속에 다 모인다. 예컨대 학교 집행부와 교수회 사이의 생각의 차이도 가감 없이 드러난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볼 수 있고, 실명 아닌 아이디만으로 댓글을 달 수도 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소용으로 인한 오해와 여기에서 비롯되는 불신과 반목이 학교발전의 동력을 식히는 일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객원지자가 되어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디어센터 출범의 중요한 의의이다. 시범 운영기간이긴 하지만 조희수가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 개방과 공유와 참여의 정신 속에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로스를 유치, 신공학관 및 기숙사 시공, 지하 4층 규모의 초대형 주차장 건설, 수영장과 운동장 공간의 복합단지 개발, 총무로 영상센터 신건축, 일산 병원 메디클러스터 계획 등 학교의 미래를 좌우하는 큰 사업들이 연이어 기다리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당연히 많은 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공론의 장에서 결려지지 않는 비방과 비어는 또 다른 분규의 씨앗이 되고 사업을 왜곡시킬 수 있다.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는 그래서 순기능적인 것이다.
신경아 사건 후유증으로 불거진 학내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도 하루빨리 정리되기를 바란다.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건 간에 분명한 사실은 내부의 갈등이 발단이 되어 한국사학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그러는 사이에 학교는 깊은 상처를 입은 채 전금 같은 6개월의 시간을 흘려버렸다는 점이다. 불편한 말이 씨가 되고, 감정을 상하게 하며, 마침내 적대적 관계로 발전하는 후진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존속하는 한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말은 날아가는 화살과 다를없다. 남 탓만 하는 경우도 바다 속에 있는 물방울들끼리 서로 다투는 모양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한 의견 개진과 건전한 토론은 우리를 내부를 결코 편 가르지 않는다. 이제 우리의 갈 길은 새로운 학내 언론의 질적 도약이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윤재웅
편집장 이운재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170-714 경북 경주시 석성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원 향	아리수
월 (11/26)	갈비경단 (2000) 낙지덮밥 (2000) 치즈돈가스 (2500)	주꾸미아채볶음 (1800) 불고기소스볶음밥 (2000) 참치전골 (2500)	철판제육두루치기 (2900) 낙지수제비 (2500) 닭볶음탕 (3500)	하이라이스 (2000) 해물덮밥 (2000)
화 (11/27)	사골우거지탕 (2000) 햄김치볶음밥 (2000) 치킨가스 (2500)	갈치조림 (2000) 수제돈가스 (3000) 치킨가스 (2500)	불고기비빔밥 (2900) 두부김치덮밥 (2500) 과일탕수&짬뽕국 (3500)	짬뽕밥 (2000) 불고기덮밥 (2000)
수 (11/28)	공중떡볶음 (2000) 잡채덮밥 (2000) 수제돈가스 (3000)	돈육매추리알조림 (1800) 치즈돈가스 (2500) 날치알술밥 (2500)	버섯육개장 (2900) 모듬햄볶음밥 (2500) 순대국밥 (2900)	육개장 (2000) 재워비빔밥 (2000)
목 (11/29)	장터국밥 (2000) 미트볼 하이라이스 (2000) 새우가스 (2500)	연두부양념장 (1800) 새싹참치캔비빔밥 (2000) 닭도리탕 (2500)	철판새우볶음밥 (2900) 닭곰탕 (2500) 쇠고기버섯전골 (3500)	김치탕 (2000) 간짜장밥 (2000)
금 (11/30)	돈육김치찌개 (2000) 불고기소스볶음밥 (2000) 고구마돈가스 (2500)	돈육콩나물볶음 (2000) 소시지김치볶음밥 (2000) 낙지들술밥 (2500)	만두전골 (2900) 하이라이스 (2500) 콩치김치찌개 (2900)	장터국밥 (2000) 닭갈비 (2000)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http://writing.dongguk.edu 동국관(M동) 4층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 2260-3380 FAX : 2260-3385

2007년 2학기 동국 우수 졸업논문 지원 사업 심사 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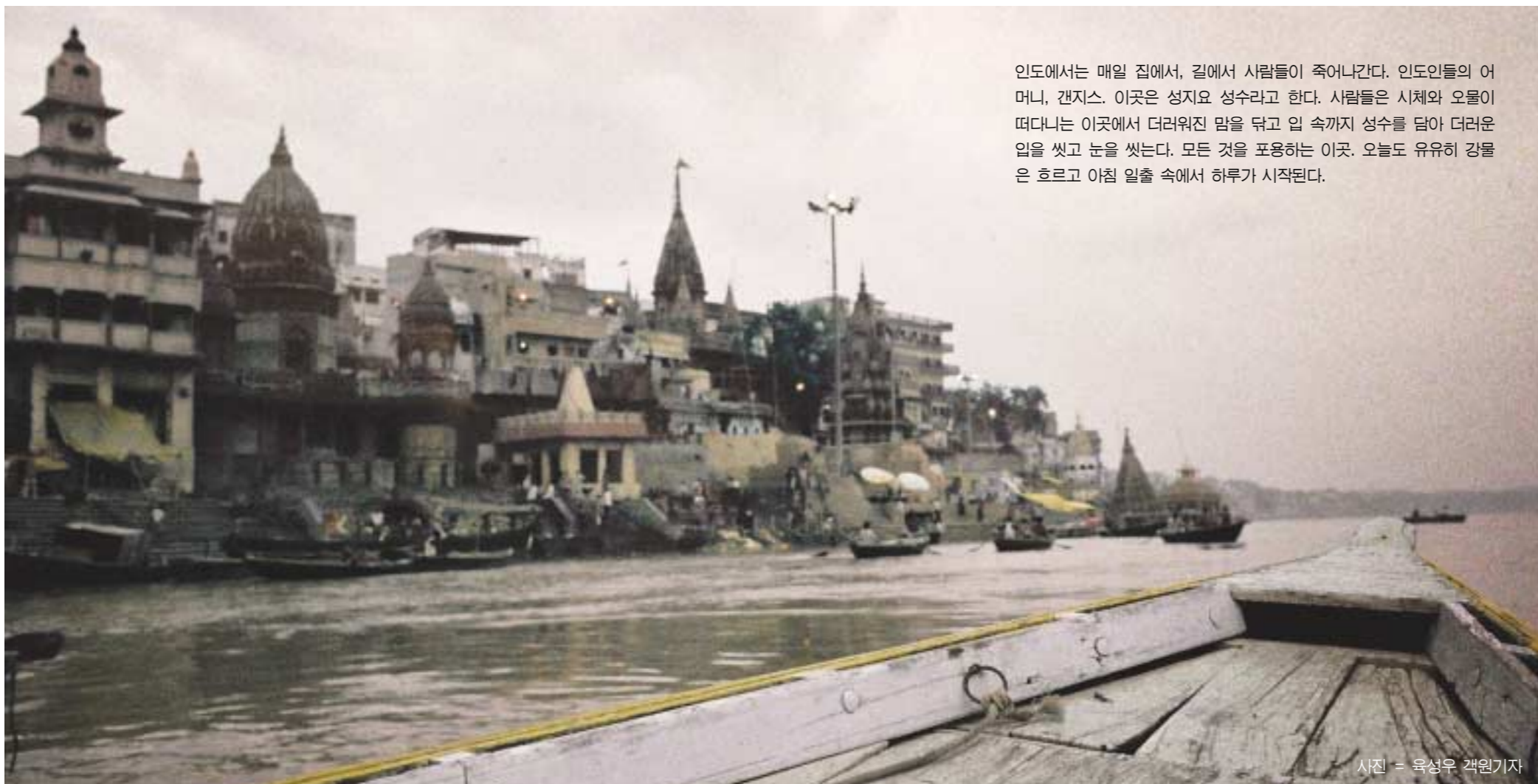
신청 서류 및 논문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대상자가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보인 지원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일정과 심사 내용은 전화와 이메일로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의 우수 졸업논문 지원 사업은 글쓰기 역량을 진작시키는 한편, 학부와 대학원 과정의 효과적인 연계를 도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매 학기 시행될 우수 졸업 논문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름	학과	논문제목
김제곤	국어국문학과	열상설 '삼대'의 도시 공간 연구
류하나	산업공학과	동국 튜터링의 팀 구성 만족도가 학습 만족과 재참여 의도 및 권유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지선	국어국문학과	신여성의 욕망과 섹슈얼리티 - '사랑과 죄'의 정미리아 분석

제1회 동국 우수 보고서 공모

동국대학교 글쓰기센터에서는 재학생들의 글쓰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자격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2. 대상 : 2007년 1학기 및 2학기 교양 수업 보고서(전공과목, 졸업논문, 외국어로 작성된 보고서 제외)
3. 응모 방법 : 글쓰기센터 방문 직접 제출
4. 응모 마감 : 2007년 11월 1일~2007년 12월 12일
5. 심사 결과 발표 : 2007년 12월 17일 (홈페이지 및 동대신문)
6. 상금 : 최우수상 1명 30만원, 우수상 2명 각 20만원, 장려상 5명 각 10만원
7. 문의 :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전화 번호: 2260-3380) http://writing.dongguk.edu
8. 제출처 :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동국관 M동 4층)
9. 기타
 - 가. 첨부하는 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성명, 소속, 학번, 연락처(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강좌명, 담당 교수명]
 - 나. 응모 보고서 유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다. 선정된 보고서는 글쓰기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우수 보고서 자료집에 수록됩니다.
 - 라. 파일 제출 시 관련 파일(그림파일 등)은 압축하여 보고서 파일 하나만 올리기 바랍니다.



인도에서는 매일 집에서, 길에서 사람들이 죽어간다. 인도인들의 어머니, 갠지스. 이곳은 성지요 성수라고 한다. 사람들은 시체와 오물이 떠다니는 이곳에서 더러워진 물을 먹고 입 속까지 성수를 달아 더러운 입을 씻고 눈을 씻는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이곳. 오늘도 유희의 강물은 흐르고 아침 일출 속에서 하루가 시작된다.

사진 = 육성우 객원기자



배낭여행, 알고가면 좋아요

할인 항공권

인도 전문 여행사나 외국 항공사(에어 인디아, 일본항공 등)를 통해 저렴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다. 저렴한 항공권은 홍콩, 대만 등을 경유하기 때문에 직항보다 오래 걸린다.

항공사	가격	경유지	도착지
일본항공	769,500원	도쿄	델리
싱가폴항공	822,000원	싱가포르	델리
대한항공	1,190,400원	직항	콜ंब이
아시아나항공	1,088,100원	직항	델리

유틸리티료, Tax 불포함, 1월 성수기 기준

30일 배낭여행 견적

종류	가격	비고
항공료	80만원	
숙박비	· 유스호스텔 및 게스트 하우스 : 250~350	· 합숙소(도미토리)를 이용할 경우 게스트 하우스의 빈감으로 이용 가능
식비	· 저렴한 현지식: 20 · 고급식당: 60 · 한국인 식당: 100~150 · 생수: 12 음료: 10	
입장료	50~300	· 현지물가에 비해 입장료가 비싼편
교통비	· 자전거차: 30정도 · 오토바이: 60정도	· 단거리 이용으로 매진 가격 · 택시는 정가가 없기 때문에 흥정 가능 · 버스는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택사보다 저렴 (택사인력을 이용한 교통수단)
총합계	1백 40만원 정도	

참고 정보

홈페이지
인도로 가는 길(<http://www.india.co.kr>), 02-7230-333
와우 인디아(<http://www.wowindia.co.kr>), 02-2088-7130

저서
인도 네팔 100배 즐기기(랜덤하우스코리아)
인도 : 론리 플래닛 트래블 가이드 (안그라픽스)

'나'를 찾아 떠나는 30일간의 배낭여행

이번 겨울 인도여행을 준비한다면 ...

10억의 거대한 인구, 서로 통하지 않는 1천 여개의 언어. 계급과 직업이 다른 신분제도. 이곳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상에서 버젓이 일어난다. 술한 시인들과 여행가들의 이야기 속에 환상을 꿈꾸지 않을 수가 없는 땅. 글과 사진으로 인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가보지 않은 인도에 매료된다.

인도의 매력 속으로

남과 북으로 3300km, 동과 서로 2700km로 펼쳐진 광활한 대지의 나라, 인도. 우리나라의 30배가 넘는 국토 안에서 만년설 덮힌 산에서부터 사막, 고원, 푸른빛의 해변까지 인도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함께 숨쉬고 있다. 각 지역마다 나름의 독특한 흔적을 남기며 5천년 넘게 인도인과 함께 해온 유적들을 도처에서 만나는 것 또한 인도의 매력이다.

한때 지상에서 가장 화려했던 왕국을 꽃피웠던 이 땅의 오늘은, 절대 빈곤으로 인해서 처절한 인간의 생존투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살다가 병들고, 늙어서 죽는 삶의 인과를 자신의 눈으로 본적은 없을 것이다. 포장에 익숙해 있는 인간은 항상 본래 모습이 가려진 일상 속에 살고 있다. 인도가 사람들에게 충격과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이유중의 하나는 생존투쟁을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 잡종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는 점이다. 이 속

에서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있고 있던 자기 자신과 만난다.

인도의 수도, 델리

이곳은 인도의 수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 인도와 인도 사람들을 이해한다. 델리는 과거 무굴제국시대의 구시가지인 올드 델리와 영국인들의 식민통치시절에 건설된 뉴델리로 나뉜다. 혼잡하고 정신없기는 마찬가지지만 올드델리는 좁고 구불구불한 길에 전통적인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고 뉴델리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눈에 띈다. 아그라포트(무굴제국 황제 악바르가 델리를 수도로 건설하면서 세운 성으로 성벽과 성문이 붉은 사암으로 만들어져 '레드포트'라고도 부른다), 꾸뎀미나르(술탄제국의 첫 군주이자 노예왕조의 시조인 꾸뎀 무트 에이백이 세운 72.7m짜리 승탑)등을 감상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얽혀있는 인도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바라나시에서 아침을

성스러운 신의 도시라고 칭해지는 이곳 도시의 아침은 부산하기만 하다. 여행자 옆으로 소가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간다. 수만의 파리떼와 바닥만 보고 걸어도 피하기 힘든 배설물들. 갠지스 강에는 소가 등등 떠가고

그 위에서 독수리가 아침 식사를 맛있게 즐기고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명상적인 풍경을 기대하게 만드는 바라나시는 아주 혼란스러운 도시로 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사랑과 고통을 간직한 타지마할

사랑과 고통은 한 번에 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곳, 타지마할은 왕비에 대한 왕 사 자한의 사랑이 처절한 아름다움으로 승화된 세계적인 건축물이다. 왕비 쿨라트 마할을 향한 사랑은 백성들과 자신에게 고스란히 고통으로 돌아왔다. 현대 건축가들이 입을 모아 찬양하는 완벽한 건축물도 그 아름다움에 탄성이 저절로 나온다. 하지만 그 탄성 속에 한 숨도 섞여있지 않다면, 이는 왕비에 대한 사랑이라는 낭만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잔인하게 다가와서 일 것이다.

실제로 인도를 여행하는 동안 환상을 꿈꾸기는 힘들다고 한다. '보트 타라', '엽서 사라' 주변의 상인들과 끊임없이 구걸하는 길인들. 그곳의 현실은 단 5분도 평화롭지 못하다. 거짓말투성이의 사기꾼과 사람의 혼을 빼놓는 도시들. 실제로 성스럽고 명상의 세계로 여겨졌던 인도에 참 많이 실망 한다고.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자신의 세계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이번 겨울에는 인도로 나를 찾아 떠나가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송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델리거리의 걸인들



갠지스강에서 몸을 씻는 순례자들



아그라에 위치한 타지마할

2008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II)

1. 모집과정 : 석·박사과정 및 학과간 협동과정
2. 모집인원 : 학위과정별 각 학과 약간명
3. 지원자격
 - ※ 국내·외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자 또는 2008년 2월 취득예정자
 -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고사 - 불교학과 필기고사 실시
5. 전형일정

구분	일정
원서접수	2007. 11. 26(월) ~ 12. 5(수)
전형일	2007. 12. 15(토) 10:00 ~
합격자발표	2007. 12. 26(수)

6. 장학혜택
 - 이공계 대학원 석사/박사 신입생 전원 1학년 1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 단, 교육·연구·실험실습 등의 사무보조 희망자에 한함
 - 본교 출신 학사 또는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자 입학자 전액 장학금 지급
- 3년 이내 진학자
 - 외국인 등록금의 50% 장학금 지급
 - 각종 교외장학 및 조교장학, 총장장학, 명진장학, 동국가족장학 등 다수의 장학금 지급
 - (BK21) 세계화 시대 불교학 교육연구단, (BK21) 차세대 나노반도체 원천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팀 선정 및 기타 국가지원 연구프로젝트 등으로 장학 및 연구비 지급
7. 문의처 : 입학관리팀 (서울)02-2260-8861~4, (경주)054-770-2031~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 모집요강 참조

입학처

무한동력 무한동국

2년 반만에!
한국 MBA에 미국 MBA까지 -

Double Chance, Dual Degree!

드디어 동국대학교가 미국의 명문 텍사스대학교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와 손잡고, MBA 복수학위 취득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경쟁에서 앞서 갑니다.
지금, '동국 비즈니스 스쿨'의 MBA 멤버가 되십시오.

무한 기회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GMAT면제 혜택
2007년 12월 31일 한도까지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1921년 창립의 명문대학인 텍사스주립대학의 사립대학 부문.
2007 미국 MBA협회 (SBA, AACSB, EQUIS) 인증

Dongguk Business School MBA 프로그램

Entrepreneurship MBA(신설) :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 기업의 한정된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는 기업경영능력 배양
Culture-Oriented MBA : 엔터테인먼트경영, 예술경영, 이벤트기획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화된 문화경영관리자 양성
General MBA : 최신경영이론과 실무자식 제공을 통한 전문경영인 양성

2008신입생 모집 | 원서접수 : 11월19일(월) ~ 11월30일(금)
02-2260-8884~5 / mba.dongguk.edu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8

무한동력 무한동국

나는
동국대학교 직원입니다

매사에 열정적인 직원으로서
그리고 직원검도동아리 '동검회'의 회원으로서
동국대학교 다니는 일이 무척 즐겁습니다.

나의 자기개발 프로그램은 검도-
나의 잠재력을 일깨워 주는 검도와
그 잠재력을 씩임없이 개발하고
자신있게 펼칠 수 있는 곳-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직원인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동국대학교 캠퍼스기획단
박 건

무한 계발

동국대학교 직원채용

모집부문 | 행정직(일반, 건축, 외국어), 전산직, 사서직
지원방법 | 본교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에서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 2007. 11. 17(토) - 11. 30(금) 18:00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 직원채용공고 참조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8